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순진이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분석
: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1999-2020)를
중심으로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최고야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분석
: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1999-2020)를
중심으로

순진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최고야

인 준 서

최고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강 경 선



심 사 위 원 배 미 현



심 사 위 원 순 진 이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likely belonging to the committee member Sun Jin-ee.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4종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9편을 선정하여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중재 목적 영역, 음악치료 중재 방법, 측정 도구 등의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은 국내외 모두 양적 연구, 그 중에서도 실험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연구 유형이 점차 확장되었으며, 국외에서는 양적 연구 다음으로 질적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등 국내보다 더 다양하게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둘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령과 임상적 특성에 따라 국내외의 연구 비중이 상이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연구와 비장애 대상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국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전 시기에 걸쳐 다양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셋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은 국내외 모두 정서, 사회 영역을 활용한 연구 비중이 높았고, 음악 영역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이 국내에서 높은 비중으로 수행되어 국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중재 목적 영역에 따른 연구 수행도의 차이가 적었다.

넷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은 국내외 모두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수행되었다. 국외에서는 감상 활동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국내에서는 연주, 감상, 노래 활동을 활용한 연

구에서 즉흥 음악 활동, 작곡 활동 등을 활용한 연구로 점차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확장되어 국외보다 더 다양한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섯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는 국내외 모두 표준화 도구와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의 수행 비중이 높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외에서 국내보다 의료적 기기 및 측정 장치,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 등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는 시대적 요구와 현상에 따른 연구의 필요를 반영하여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이루었으며, 각국의 사회 문화적 관점과 가치관이 반영된 연구 주제와 방법을 채택하여 다양한 치료적 변화를 입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국내외 실정에 따라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범위, 주제, 연구 방법이 확장되고 세분화됨을 밝힘으로써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의 임상 실제와 학술 연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왔음에 주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7
3. 용어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9
1. 음악치료 연구	9
1) 음악치료의 학제화	9
2) 음악치료 연구의 중요성	10
2.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12
1)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12
2) 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13
3. 음악치료 연구 동향 분석 연구	15
1) 음악치료 연구 동향 분석 연구	15
2)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동향 분석 연구	18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논문의 수집 및 선정	22
2. 자료 분석 절차	25
1) 분석틀의 조작적 정의	25

2) 분석기준 선정	25
3) 전문가 타당도 검증 및 수정	34
3. 분석항목	41
1) 연구 유형	41
2) 연구 참여자	42
3) 중재 목적 영역	44
4) 음악치료 중재 방법	45
5) 측정도구	46
4. 자료 분석	48
IV. 연구결과	49
1.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49
1) 연구 유형의 연도별 동향	49
2) 연구 유형의 연구 특성	54
2.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57
1-1) 연구 참여자 연령의 연도별 동향	57
1-2) 연구 참여자 연령의 연구 특성	61
2-1)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의 연도별 동향	63
2-2)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의 연구 특성	67
3.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69
1) 중재 목적 영역의 연도별 동향	69
2) 중재 목적 영역의 연구 특성	74
4.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76
1)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연도별 동향	76
2)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연구 특성	81

5.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83
1) 측정도구의 연도별 동향	83
2) 측정도구의 연구 특성	87
V. 결론 및 제언	89
1. 결론	89
2. 제언	9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1

부 록 2

표 목 차

<표 III-1> 연구 유형 평가	35
<표 III-2> 연구 참여자 연령 평가	36
<표 III-3> 연구 참여자 진단적 특성 평가	37
<표 III-4>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평가	37
<표 III-5> 중재 목적 영역 평가	38
<표 III-6> 음악치료 중재 방법 평가	39
<표 III-7> 측정도구 평가	40
<표 III-8> 연구 유형의 분류 기준	41
<표 III-9> 연구 참여자 연령의 분류 기준	42
<표 III-10>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의 분류 기준	43
<표 III-11> 장애 대상 임상적 특성의 분류 기준	44
<표 III-12> 중재 목적 영역의 분류 기준	45
<표 III-13>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분류 기준	46
<표 III-14> 측정도구의 분류 기준	47
<표 IV-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	51
<표 IV-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	53
<표 IV-3>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56
<표 IV-4>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연도별 동향 ...	58
<표 IV-5>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연도별 동향 ...	60
<표 IV-6>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62
<표 IV-7>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연도별 동향	64

<표 IV-8>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연도별 동향	66
<표 IV-9>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68
<표 IV-10>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 ..	71
<표 IV-11>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 ...	73
<표 IV-12>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75
<표 IV-13>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연도별 동향 ..	78
<표 IV-14>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연도별 동향 ..	80
<표 IV-15>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82
<표 IV-16>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연도별 동향	84
<표 IV-17>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연도별 동향	86
<표 IV-18>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88

그림 목 차

<그림 Ⅲ-1>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의 선정 절차	24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치료는 내담자의 건강, 교육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음악을 치료 중재로 적용하는 응용 학문이다(AMTA, 2022a).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치료적 관계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Bruscia, 1998a),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개별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상적이고 근거에 기반을 둔 음악 중재를 사용한다(AMTA, 2022a). 음악치료가 인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중재가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치료 영역임을 밝혀내는 최선의 방법은 음악치료 연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Edwards, 2005).

연구는 표준화된 방법과 보편적 수준의 통계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부(眞否)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Bruscia, 1998b). 음악치료 연구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여러 학자에 의해 강조되었다. Gaston(1968)은 연구가 이론, 임상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는 삼각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 영역이 순환적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 Wheeler(1983; 2016) 역시 음악치료 연구는 이론, 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음악치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음악치료는 임상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다시 연구에 반영하여 새로운 연구를 파생하는 순환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음악치료 이론이 정립되므로 임상, 연구, 이론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될 때 음악치료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음악치료가 학문과 임상에서의 입지를 보다 견고히 다지고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악치료의 연구 동향과 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외 음악치료 연구자들은 각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음악치료 연구의 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음악치료의 치료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 ‘음악치료학술지(Journal of Music Therapy: 이하 JMT)에는 1970년대부터 음악치료 연구를 대상과 연구 방법, 목적 등에 따라 범주화하여 연구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게재되었다(Brooks, 2003; Codding, 1987; Gfeller, 1987; Gilbert, 1979; Gilbertson & Aldridge, 2003; James, 1985). 국내에서도 음악치료 학제화 이전에 발표된 음악치료 관련 학위논문을 분석한 정은이(2001)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동향 분석(김경숙, 이상은, 2016, 조현아, 2013),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동향 분석(김은주, 1999; 남은정, 2000; 문현호, 2011; 이영화, 2009), 음악치료 전공 학위논문 연구 동향 분석(황은영, 박소연, 2012), 등재학술지 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 분석(김하영, 2018)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음악치료 연구의 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음악치료 분야에서의 연구 유형은 크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가 있다. 국내 음악치료 도입 초기에는 기술 연구, 실험 연구와 같은 양적 연구의 비중이 높았는데(김하영, 2018; 김경숙, 이상은, 2016, 조현아, 2013; 황은영, 박소연, 2012) 연구자들은 당시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김하영, 2018), 양적 연구의 비중이 높은 음악치료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편수가 많았기 때문(김경숙, 이상은, 2016)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사와 연구 방법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역사 연구, 철학 연구, 현상학적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이 혼합된 혼합 연구가 점차 발표되면서 연구 유형의 범위도 확대되었다(김하영, 2018; 황은영, 박소연, 2012).

음악치료는 영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임상과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이다. 인간발달 분야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발달시기를 만 18세까지로 보고 있으며(Berk, 2015;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아동은 급격한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통해 발달영역의 모든 측면을 증진시키므로(Berk, 2015) 아동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발달 영역은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사회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영역별 기술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며 개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적으로 발달한다(김미숙, 2000; 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음악 활동은 음악적 기술 외에도 사회화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obb, 2003). 인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음악은 인간의 인지, 사회, 정서, 신체, 언어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Radocy & Boyle, 2003; Davis, Gfeller, & Thaut, 2008),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을 활용한 아동의 발달 영역별 기술 축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미숙, 2000; 오혜정, 2010; 장혜원, 2013; 최세민, 이윤옥, 2007; 황혜경, 2005). 아동기의 음악 활동 참여 경험은 아동의 언어 능력, 문해력, 수리력, 창의력과 같은 교육적 영역뿐 아니라 성취감, 자아인식, 자신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 영역과 사회 영역, 신체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동의 지적, 사회적, 개별적 영역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Hallam, 2010). 음악치료가 처음 시행된 미국에서는 학제화 이전부터 장애 아동의 교육과정에 음악을 활용하였고(Gfeller, 1999), 장애 유아 대상 음악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는 통합 유아 교육 기관에서의 음악 활동에도 연계되어 개별화 교육계획안(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목표 실행에도 도움을 주었다(장혜원, 2008).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는 대상의 연령 및 임상별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왔다. 장애 아동 대상 음악치료는 시각장애 영유아(Kern & Wolery, 2001; Robb, 2003), 중증 장애 아동(Boswell & Vidret, 1993), 자폐범주성장애 유아 및 아동(강경선, 2007; 김선희, 2001; 문지영, 2000; 박소연, 2004; Lim,

2010; Lim & Draper, 2011; Nielsen & Holck, 2020; Salomon-Gimmon & Elefant, 2019), 지적장애 아동(강성미, 2004; 성인영, 1999; 최희선, 2000),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강현정, 2006; Rickson, 2006), 청각장애 아동(김효진, 정현주, 2017), 학습장애 아동(임명희, 2004), 발달지체 아동(장혜원, 2002, 2008) 또는 임상적 특성이 각기 다른 아동(Whipple, Gfeller, Driscoll, Oleson, & McGregor, 2015)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비장애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는 조산아(Keith, 2009), 유아(황은영, 2002; Register, 2004), 초등학생(오소영, 정현주, 2016; Tan, 2004), 사별 경험 아동(Fiore, 2016), 학대 경험 아동(이지영, 2005; Strehlow, 2009; Fairchild & McFerran, 2019), 저소득층 아동(김선하, 2009; 김수희, 2009), 우울성향 청소년(장영민, 2003), 일반계 고등학생(최병철, 황은영, 2011),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윤주리, 2014), 부적응 청소년(김지원, 2018), 시설보호 청소년(이민지, 양은아, 2020), 다문화 청소년(윤선영, 강경선, 2016), 새터민 아동 및 청소년(이지민, 2020; 정현정, 2009), 인터넷 중독 청소년(여정윤, 2010; 2012)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국내외에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전지혜, 2018; 송미화, 2013), 인터넷 중독 청소년(윤은정, 박혜영, 2019) 등의 연구 참여자를 분석한 연구, 중재 목적 영역을 분석한 연구(고은진, 2017; 서안나, 2020; 조현경, 2009),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분석한 연구(이미정, 2020; 이승은, 2019), 측정도구를 분석한 연구(이지혜, 2018)가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특정 연구 참여자나 영역에 제한되어 있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동향 및 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분석 범위를 국내로 한정된 연구가 대다수였으며, 음악치료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분석(문수정, 2021; 이미경, 2006; 이지혜, 2018)하거나 타 분야의 학술지를 포함하여 분석(고은진, 2017; 이미정, 2020; 이승은, 2019; 전지혜, 2018)하기도 하였다.

학술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논문이 선정되며 그 학문 분야나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연구 방향성도 학술지를 통해 알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지 게재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해왔다(김경숙, 이상은, 2016; 김유리, 노진아, 2011; 이시자, 2010; 최명애 외, 2010).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음악치료학회가 1999년부터 발행해 온 ‘한국음악치료학회지(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이하 KJMT)’와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가 2004년부터 발행해 온 ‘인간행동과 음악연구(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이하 JMHB)’를 들 수 있다. KJMT와 JMHB는 국내 음악치료의 학제화 시기와 맞물려 결성된 양 학회에서 창간되어 2022년 5월 현재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다양한 학술연구를 게재하여 학문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왔다(한국음악치료학회, 2022a;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2022a). 또한 두 학술지 모두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K)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어(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22a, 2022b) 학술연구의 질적 성장 및 학술적 가치와 성과를 인정받아(김경숙, 이상은, 2016; 조현아, 2013) 국제적 수준의 음악치료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알려왔다.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게재 연구는 음악치료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한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제한점을 보이나(김경숙, 이상은, 2016),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외에서는 오래전부터 학술지를 중심으로 음악치료 분석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게재 연구를 분석하여 음악치료가 전문 분야로서 학문적 성장과 발전을 이룬 과정을 살펴보았다(Brooks, 2003)는 점에서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음악치료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임상과 연구 모두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Brooks, 2003), 음악치료학술지(Journal of Music Therapy: JMT)와 북유럽음악치료학술지(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이하 NJMT)는 국제 학술지 인용색인 중 하나인 사회과학학술지인용색인(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에 등재되어(WoS, 2022),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술지임을 인정받았다. 국내의 음악치료는 미국의 음악치료를 중심으로 학문적·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이래로 국내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자들과도 활발한 연구 교류를 이루고 있다(최병철, 2017). 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논문이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하였고, 국내에서는 JMT와 NJMT의 게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은주, 1999; 문현호, 2011; 이영화, 2009)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국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범위는 국내로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동향 분석 연구 역시 미국의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와 국외 음악치료 연구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시행되었으나 아동 대상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동향 연구는 국내와 미국의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 권나미(2016)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분석 범위를 북유럽으로 확장하여 국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같은 시기에 미국, 북유럽에서 수행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와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적 수준의 학문으로 발전한 음악치료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다각적으로 조망하여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은 어떠한가?
 - 1)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 2)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구 특성은 어떠한가?
2.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어떠한가?
 - 1)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 2)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구 특성은 어떠한가?
3.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은 어떠한가?
 - 1)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 2)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구 특성은 어떠한가?
4.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은 어떠한가?
 - 1)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방법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 2)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방법 연구 특성은 어떠한가?
5.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는 어떠한가?
 - 1)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 2)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연구 특성은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1) 아동

아동의 연령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나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제1조에서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국제아동인권센터, 2022), 국외의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18세 미만인 사람을 성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Pelletier, 2004; Yinger, 2015) 본 연구에서는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한다.

2)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학술지는 학문 분야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게재 연구에 대한 분석은 연구와 임상 의 발전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김경숙, 이상은, 2016; 황은영, 2020).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내에서 처음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가 창간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로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인 한국음악치료학회지(KJMT)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JMHB), 사회과학학술지인용색인(SSCI) 등재 학술지인 음악치료학술지(JMT)와 북유럽음악치료학술지(NJMT)를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치료 연구

1) 음악치료의 학제화

음악은 고대부터 주술, 종교적 차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되다가 18세기 이후 의학 분야에서 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적 논의가 나타났다(Korenjak, 2018). 여러 임상가와 학자들은 음악의 과학적 효과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당시에는 음악의 치료적 근거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음악치료 이론 및 학문적인 발전에 크게 공헌하지는 못하였다(Davis, 1987; Davis, Gfeller, & Thaut, 2008). 이후 음악치료는 미국의 특수교육 현장과 병원 내 프로그램을 통해 제1,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겪게 된 군인들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임상적으로 발달하였다. 점차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음악치료가 전문 분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점차 음악치료의 학제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Davis, Gfeller, & Thaut, 2008; Gfeller, 1999; Rocke, 1996). 미국에서는 1944년 미시건주립대학교에 음악치료 과목이 최초로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1946년 캔자스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과정이 개설되면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전문 음악치료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AMTA, 2022b).

국내에서는 음악치료 학제화 이전부터 정신과를 중심으로 음악치료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당시의 연구는 연구자들이 전문적인 음악치료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과 연구 분류가 제한적이고 중재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음악치료의 치료적 근거를 제시하기에 어려움을 보였다(정은이, 2001). 이후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국외에서 음악치료를 접하거나 음악치료 학위과정을 이수한 음악치료사들이 귀국해 음악치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개인 음악치료 센터를 개원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음악치료가 알려면서 음악치료 학제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정영주, 2001). 1997년 3월 숙명여자대학교, 9월 이화여자대학교와 한세대학교에 음악치료전공 석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1999년 음악치료 전공 학위과정을 이수한 전문 음악치료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출되었다. 학제화와 더불어 음악치료 학술단체도 설립되었는데 대표적인 음악치료 학술단체로는 1996년 창립된 한국음악치료학회와 2004년 창립된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를 들 수 있다. 양 학회는 각각 1999년 12월 ‘한국음악치료학회지(KJMT)’와 2004년 11월 ‘음악치료 교육연구(현, 인간행동와 음악연구 : JMHB)’를 창간하였고, 국내에서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가 발행되면서 음악치료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2) 음악치료 연구의 중요성

음악치료 연구자들은 임상에서 음악치료를 알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고자 음악치료 연구를 통해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를 제시하였다(Geist, 2014). 연구, 임상, 이론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발전해나가는 데 연구는 임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며, 이후 임상과 이론의 영향을 받은 연구가 다시 이어진다(Wheeler & Kenny, 2005).

200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근거기반 임상(Evidence-Based Practice : EBP)이 강조되었다. 근거기반 임상이란 개별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입증된 최선의 근거를 양심적이고 솔직하고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의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점차 여러 학문 분야에 적용되었고 각 분야마다 정의의 차이를 보인다(Else & Wheeler, 2010; Kern, 2010).

미국음악치료협회(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AMTA)의 이사회는 2005년 음악치료 분야에서 근거기반 임상실행의 실행을 위해 연구에 관한 전략적 우선순위(AMTA Strategic Priority on Research)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하였고, 2010년 근거기반 음악치료 임상(Evidence-Based Music Therapy Practice : EBMTP)을 정의하였다. 근거기반 음악치료 임상이란 ‘최상의 연구,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내담자의 필요, 가치, 선호를 통합하여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AMTA, 2022a; 2022c). 최상의 연구란 현존하는 음악치료 임상, 이론, 연구에 대한 문헌으로서 이는 임상에서의 기초적 근거가 된다(Abrams, 2010).

Wheeler(2016)는 근거기반 음악치료 임상이란 과학적 문헌에 대한 체계적 검토, 전문가의 경험 및 의견, 임상적 의사결정 및 치료 계획에 대한 내담자의 선호와 가치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치료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임상에서의 치료적 근거를 찾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여 임상적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내담자의 가치와 상황, 치료사의 임상적 전문성과 연구의 근거를 통합하는 절차를 거쳐 각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연구를 통한 치료적 근거는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치료 중재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한다(Edwards, 2005). 따라서 근거기반 음악치료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음악치료의 잠재력을 뒷받침하므로 음악치료 연구의 근거가 되고 임상에 있어 필수적이며, 음악치료사들은 치료 근거에 대한 기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Jones, 2006).

2.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1)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국내의 대표적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로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음악치료학회지(KJMT)와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인간행동과 음악연구(JMHB)를 들 수 있다. 두 학술지는 창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2013년에 KJMT가, 2015년에 JMHB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22a; 2022b)되어 학문의 전문성을 알렸고, 양적인 동시에 질적으로 성장해 오면서(김경숙, 이상은, 2016; 박소연, 황은영, 2006) 학문과 임상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KJMT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가 1999년 12월 창간한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로 연간 발행횟수는 다소 유동적이었으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월과 10월에 연 2회 발간되고 있다(한국음악치료학회, 2022b; 최병철, 2017).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는 음악치료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의 수행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한국음악치료학회, 2022a). KJMT는 음악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참여자, 연구 주제, 연구 유형, 연구 방법 등을 다룬 연구들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왔으며, 2015년부터 논문 게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김경숙, 이상은, 2016; 최병철, 2017).

JMHB는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가 발간해 온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로 2004년 11월 ‘음악치료교육연구’라는 학술지명으로 1권 1호가 창간되었고, 2013년 현재의 학술지명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매년 5월과 11월에 연 2회 발간되고 있다(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2022a).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는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교육적, 치료적 매개체로 활용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더 나아가 국내외 음악치료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2022b). JMHB는 신경학적 음악치료, 음악과 심상치료, 음악심리치료 및 다양한 전문 영역에 관한 연구, 음악과 연계된 융복합 연구, 음악의 근원적인 요소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음악치료와 연관된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있다(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2022c).

2)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음악치료 학제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는 1950년 음악치료사의 직업적 권익 보호를 위해 최초의 미국 내 음악치료협회인 전국음악치료협회(NAMT)가 창립되었다. 전국음악치료협회(NAMT)는 1964년 최초의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인 음악치료학술지(JMT)를 창간하였고, 1982년 음악치료의 관점(Music Therapy Perspectives: 이하 MTP)을 창간하였다(남은정, 2000). JMT는 사회과학학술지인용색인(SSCI) 등재 학술지이며, 음악치료 연구의 활발한 교류와 진보를 목적으로 두고 음악치료의 철학적 관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임상에서의 적용과 평론, 서평 등을 게재하며 연 4회 발간되고 있다(AMTA, 2022b; WoS, 2022). Gfeller(1995)는 JMT에 게재된 연구들은 다양한 학술연구를 통해 음악치료 연구와 임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시하여 실험 연구를 게재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음악치료의 관점(MTP)은 연구보다 임상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논의를 그 목적으로 둔다(AMTA, 2022d; 남은정, 2000).

북유럽을 대표하는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인 북유럽음악치료학술지(NJMT)는 1992년 스칸디나비아어로 된 학술지명인 북유럽음악치료학술지(Nordisk Tidsskrift for Musikkterapi)로 창간되었다. 초기에는 북유럽 국가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나 1999년부터 영어를 주 언어로 채택하였고, 2001년 현재의 학술지명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연 5회 발간되고 있다. NJMT는 유럽 5개국(덴마

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발트해 3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북유럽 음악치료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음악치료의 철학과 연구, 임상적 관점과 묘사, 인터뷰와 서평 등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며, JMT와 더불어 사회과학학술지인용색인(SS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학술적 연구성과를 알리고 있다(Taylor & Francis Online, 2022a; 2022b; WoS, 2022).

이외에도 1984년 영국음악치료학술지(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 BJMT), 1990년 호주음악치료학술지(Australian Journal of Music Therapy: AJMT), 1990년 뉴질랜드음악치료학술지(New Zealand Music Therapy Journal: NZJMT) 등 여러 국가에서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가 창간되어 음악치료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Brooks, 2003).

3. 음악치료 연구 동향 분석 연구

1) 음악치료 연구 동향 분석 연구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는 1970년대부터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게재되었다. Jellison(1973)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JMT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편수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연구는 증가하였고, 연구 유형은 기술 연구, 철학 연구, 실험 연구, 역사 연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험 연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Gilbert(1979)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JMT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유형은 실험 연구와 기술 연구가 증가한 반면, 역사 연구와 철학 연구는 감소하였고, 연구 주제는 기초 연구와 교육적 내용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한 반면, 정신과 관련 연구는 감소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정신장애 장애인, 대학생, 일반 아동 대상 연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oddling(1987)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JMT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유형은 실험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 주제는 연구, 직업, 임상 중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김은주(1999)는 1987년에서 1998년까지 JMT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앞선 시기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 유형은 실험 연구와 기술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실험 연구는 이전 시기에 이어 연구 편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기술 연구는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일반인 대상이 가장 많았고, 1985년 이후 노인 대상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연구 주제는 기초 연구, 임상 연구, 음악치료 관련 연구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영화(2009)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JMT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연구 유형과 연구 참여자는 실험 연구와 일반 성인 대상 연구가 가

장 많았음을 보고하였으며 연구 주제는 Bruscia(2003)가 분류한 진단, 치료, 평가 영역을 포함하는 분야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업 연구, 기초 연구의 순으로 수행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문현호(2011)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NJMT에 게재된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유형은 기술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실험 연구, 철학 연구, 역사 연구 순으로 게재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일반인 대상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슷한 시기의 JMT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은주, 1999; 이영화, 2009)의 보고와 유사하였으나 연구 주제는 임상 관련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기초 연구, 직업 연구의 순으로 나타나 JMT의 연구 비중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도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는 미숙아 및 부모 대상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Haslbeck, 2012), 노래(Clark & Harding, 2012), GIM(Jerling & Heyns, 2020)와 같은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대상 음악치료 중재(Reschke-Hernandez, 2011), 성인 대상 운동 및 신체 활동에서의 음악감상(Clark, Baker & Taylor, 2016) 등 특정 대상에 따른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를 고찰한 연구도 게재되었다. 또한 각국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의 연구 동향(Gilbertson & Aldridge, 2003), 근거이론 음악치료(O'Callaghan, 2012), 연구 설계 방법(Gregory, 2002), 실험통제집단 연구에서의 통제집단 사용의 효과(Jones, 2006), 음악치료에서의 유머 활용(Haire & MacDonald, 2019) 등 음악치료의 역사적 흐름, 이론, 연구 방법 등을 분석한 연구도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음악치료 연구의 성과와 동향을 파악하고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의 연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현아(2013)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KJMT와 JMHB에 게재된 연구 총 198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유

형은 두 학술지 모두 양적 연구인 기술 연구와 실험 연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역사 연구와 철학 연구의 비율은 낮거나 전무하다고 보고하였다. 두 학술지 모두 기술 연구, 실험 연구 순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의 NJMT 연구 동향을 분석한 문현호(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두 학술지 모두 일반 대상 연구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을 보고하여 미국과 북유럽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문현호, 2011; 이영화, 2009)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국내외에서 모두 일반 대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 주제는 두 학술지 모두 학문 연구, 전문성 연구, 기초 연구의 순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JMT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영화(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경숙과 이상은(2016)은 1999년부터 2016년 8월까지 KJMT에 게재된 연구 총 158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유형은 실험 연구와 조사 연구를 포함한 양적 연구의 비율이 81%로 나타나 질적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 내용은 음악치료 효과를 다룬 연구의 빈도가 높았으며, 연구 참여자는 성인 대상 연구가 57.6%로 나타나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는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김영신, 고명환, 박지은, 2011; 김영신, 박지은, 2011), 연구 참여자(조연진, 2013), 중재 목적 영역(고범석, 배미현, 2018, 권수영, 배미현, 2018), 측정도구(이상은, 김경숙, 2015) 등에 따른 분석 연구도 게재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구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의 음악치료의 효과를 메타분석 연구한 Standley(1986)를 시작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참여자와 연구 변인에 대한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하였다. 그 예로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 및 청소년(Whipple, 2004), 치매 환자(Koger, Chapin & Brotons, 1999), 완화병동 환자(McConnell, Scott & Porter, 2016), 뇌졸중 환자(Yoo, 2011), 조산아 및 부모(Bieleninik, Ghetti & Gold, 2016),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Solli, Rolvsjord & Borg, 2013) 등의 연구 참여자에 따른 분석과 정신질환 (Silverman, 2003), 스트레스(Pelletier, 2004), 통증(Lee, 2016) 등의 다양한 변인에 대한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 크기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도 김수희(2002)와 임진석(2007)이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음악치료 연구의 효과를 분석 연구하였고, 아동(유가을, 윤예은, 2019; 장연희, 박은경, 2018), 청소년(황은영, 2012), 치매노인(조아람, 김영신, 2015; 조연진, 고범석, 2018) 등의 다양한 연구 참여자나 스트레스(박현경, 이주영, 2014), 정서(위아름, 2016) 등의 특정 변인을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가 다수 시행되었다.

2)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동향 분석 연구

음악치료 분석 연구에서는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Brown과 Jellison(2012)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JMT, MTP와 더불어 음악교육 분야 학술지 2종에 게재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45편을 참여 여부, 연령,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시행 여부, 종속변인 및 독립변인, 중재 목적에 따라 범주화하여 Jellison(2000)의 연구에서 분석한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구 동향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유형은 실험 연구의 비율이 1999년 전후로 46%에서 71%로 증가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비장애 대상 연구가 전체 연구의 40%를 차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장애 대상 연구에서 장애 유형은 이전 시기에는 7%였던 자폐범주성장애가 23%로 증가하였으며, 지적장애는 25%에서 12%로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중재 목적 영역은 사회 영역이 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분야 관련 연구도 이전 시기보다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Reschke-Hernandez(2011)은 1940년부터 2009년까지 영문 출판된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대상 음악치료 중재의 강점과 제

한점을 분석하였고, 연구 발표 시기에 따라 1940년부터 1989년까지의 연구와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를 구분하여 중재 목표, 중재 기술에 대한 연도별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 근거 수준을 근거기반 의학센터(Centre for Evidence-Based Medicine: CEBM)의 지침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에서 중재 목적 영역은 사회 영역, 의사소통 영역, 행동 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감각 영역에서의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전 시기에 이어 사례 연구가 많이 게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정은이(2001)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음악치료 관련 논문 총 83편을 연구 주제에 따라 정신과, 아동, 청소년, 일반의료, 노인, 기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중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연구는 36편이 발표되었음을 보고하여 국내에서 학제화 이전부터 아동 대상의 음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경(2006)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일반 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석사학위논문 총 90편을 Jellison(2000)의 분류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 연구 유형, 연구 목표 영역, 음악치료 중재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는 일반 아동 대상 연구가 증가하였고, 장애 아동 대상 연구 중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대상 연구가 24%, 지적장애 대상 아동 연구가 6%의 비중으로 수행되었음을 보고하여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대상 연구 비중이 지적장애 아동 대상 연구보다 4배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유형은 양적 연구의 비중이 높았는데 실험 연구는 전체의 70%인 반면, 기술 연구는 18%에 그쳐 실험 연구에 비해 기술 연구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목표 영역은 사회, 정서, 언어, 인지, 음악, 복합, 운동, 기타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고, 음악치료 중재 방법은 한 편의 연구에서 단일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활용하기보다 두 가지 이상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활

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분석 연구는 특정 연구 참여자에 따른 임상적 특성이나 음악치료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주로 다루어졌다. 안은경(2012)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연구를 다룬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및 학위논문 총 62편을 목표영역, 학급별, 연구 유형, 측정 도구, 음악치료 중재 방법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측정 도구는 총 29편에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고, 6편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음악치료 중재 방법은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한 이미경(2006)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편의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활용되었다고 보고하여 국내외 음악치료 현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가을과 윤예은(2016)은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치료 연구 중 자폐범주성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듬운동과제를 적용한 실험 연구 총 10편을 선정하여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리드믹 운동과제의 수행력을 분석하고, 이를 비장애 아동과 비교하여 운동조절 측면에서의 양상, 다른 발달영역의 지표, 특히 사회성 지표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리드믹 운동과제 평가를 분석하였다. 이승은(2019)은 지적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음악 중재의 전문성을 알아보기 위해 1999년 이후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20편을 연대별 현황,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연구 방법, 대상자의 연령대로 범주화하여 연구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진동이 큰 악기를 선호하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무울 타악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장애 아동 대상 음악 중재를 적용한 단일대상 연구를 분석한 안성희(2014)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녹음된 음악보다 라이브 음악을 제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미정(2020)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 음악치료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치료 연구 중 6세 이하의 자폐범주성장애 영유아 대상 연구 총 18편을 중재의 전반적 특성, 중재 유형별 특징, 발달 특성을 반영한 중재 전략 및 논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재 목적 영역은 사회 영역이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연구 참여자에 따라 다양한 분석항목으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범주화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 연구하였다는 강점이 있으나 특정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시행되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과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였고, 분석 대상은 10편에서 많게는 62편으로 연구 편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비교한 분석 연구도 시행되었다. 권나미(2016)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4종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7편을 연구 참여자, 연구 유형, 연구 내용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는 국내외에서 모두 장애 대상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유사하였으나, 비장애 대상 연구에서 국내에서는 사별 경험 아동, 미숙아 대상 연구를 다루지 않은 반면, 국외에서는 인터넷 중독, 저소득층, 학습부진, 학대 경험 아동 대상 연구를 다루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유형은 실험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중재 목적은 정서 영역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권나미(2016)의 연구는 국외의 연구 범위를 미국으로 한정하였고, 분석 범위에 아동 외 대상을 포함하여 아동 대상만을 다룬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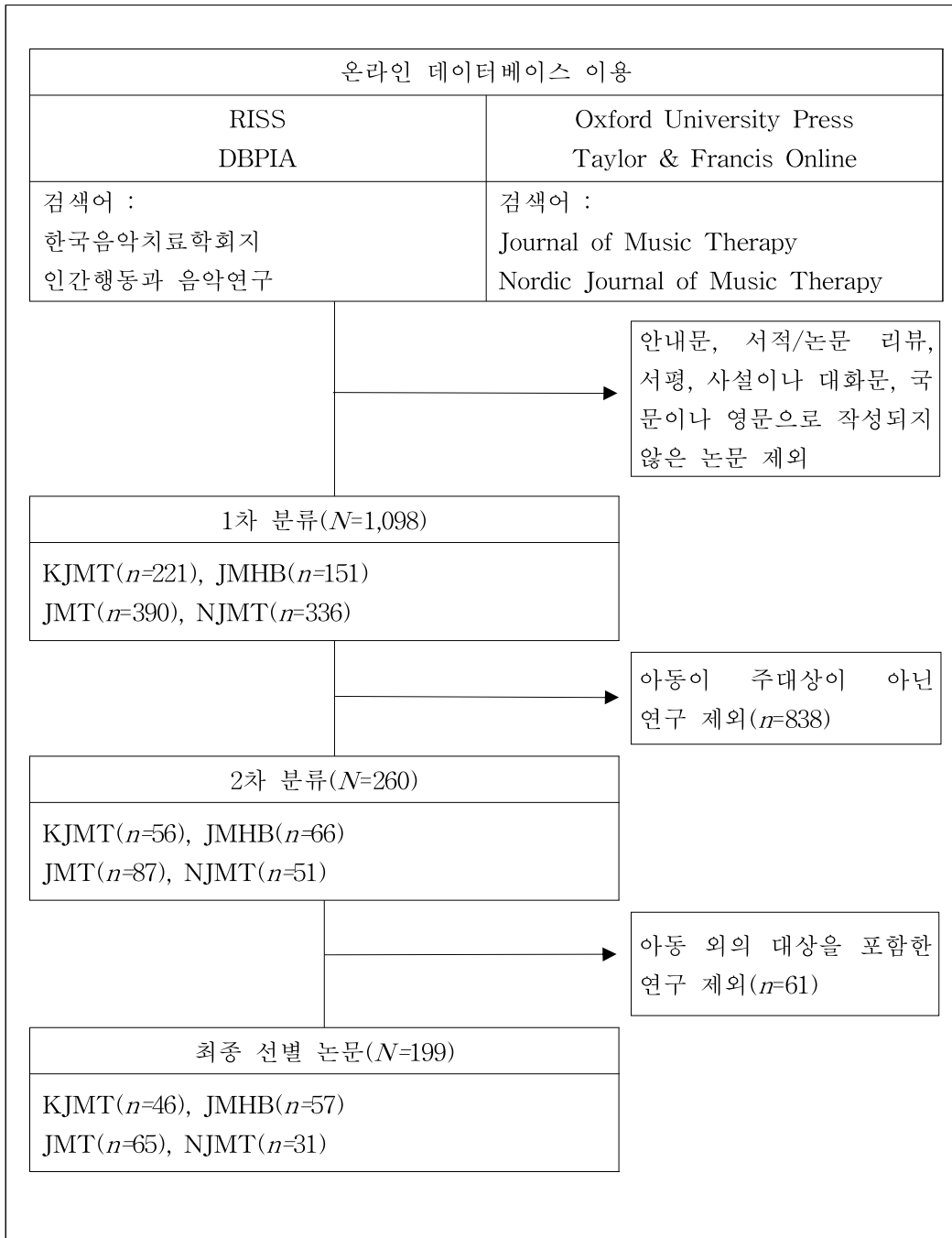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논문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중재 목적 영역, 음악치료 중재 방법, 측정도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가 창간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에서 발간된 음악치료 학술지 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인 한국음악치료학회지(KJMT)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JMHB), 사회과학학술지인용색인(SSCI) 등재 학술지인 음악치료학술지(JMT)와 북유럽음악치료학술지(NJMT)를 선정하여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KJMT와 JMHB는 국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에서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JMT와 NJMT는 국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 테일러와 프랜시스(Taylor & Francis Online)에 ‘음악치료학술지(Journal of Music Therapy), ‘북유럽음악치료학술지(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1차 검색을 통해 총 1,098편을 수집하였으며 각종 안내문, 서적/논문 리뷰, 서평, 사설이나 대화문,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차 검색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을 선별한 결과 총 260편을 수집하였으며, 그 중 특수교사,

음악치료사, 가족, 대학생, 노인 등 아동 외의 대상을 포함한 연구논문 61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KJMT에 게재된 연구논문 46편, JMHB에 게재된 연구논문 57편, JMT에 게재된 연구논문 65편, NJMT에 게재된 연구논문 31편까지 총 199편이 최종 분석 자료에 해당되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의 선정 절차는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의 선정 절차

2.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중재 목적 영역, 음악치료 중재 방법, 측정도구 등의 항목으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및 특성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진행하였다.

1) 분석틀의 조작적 정의

연구자는 선행된 음악치료 동향 분석 연구의 분석항목과 분류기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절한 분석항목과 분류기준을 고안하였다. 이어 분석 자료에서 도출된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연구 내용, 중재 방법을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중재 목적 영역, 음악치료 중재 방법, 측정도구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분석항목의 선정 및 분류의 기준은 국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동향 분석 연구(김경숙, 이상은, 2016; 김은주, 1999; 문현호, 2011; 이영화, 2009; Brooks, 2003; Gfeller, 1987; Gilbert, 1979; Jellison, 1973),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게재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분석한 연구(이상은, 김경숙, 2015),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학위논문을 분석한 연구(이미경, 2006)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고안하였으며, 음악치료 전문가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최종적으로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2) 분석기준 선정

(1) 연구 유형

연구 유형은 크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성태제, 시기자, 2020; Maxwell, 2016). 양적 연구는 표준화된 방법과 보편적인 수

준의 통계적 증명을 기반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Bruscia, 1998).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가설을 세우고 통계 및 수치화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미리 결정한 측정도구로 자료를 분석하며,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예측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다(Williams, 2007).

질적 연구는 연구자 자신을 연구의 도구로 삼아 연구자의 철학과 관점이 반영된 연구 절차나 방법으로 비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인 내용을 분석하거나 개인적 관점에 근거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한다(Aigen, 1993; Creswell, 2013). 혼합 연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와 함께 제3의 주요 연구 유형으로 19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그 용어가 등장하였다. 혼합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개념, 방법, 자료가 통합된 연구 유형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질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Maxwell, 2016; Johnson, Onwuegbuzie, & Turner, 2007).

선행된 음악치료 동향 분석 연구에서 연구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국내외 음악치료 연구의 분류 방법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구 유형을 주로 실험 연구, 기술 연구, 철학 연구, 역사 연구로 범주화하였으며(김은주, 1999; 이영화, 2009; Jellison, 1973; Gilbert, 1979), Brooks(2003)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임상 연구, 철학 연구, 역사 연구, 직업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경숙과 이상은(2016)은 연구 유형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범주화하였으며, 양적 연구를 실험 연구와 기술 연구로 세분화하여 이를 다시 실험 연구는 단일대상 연구와 집단실험 연구로, 기술 연구는 조사 연구, 문헌 연구, 개발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사례 연구를 포

함한 질적 연구, 역사 연구, 철학 연구로 범주화하였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연구는 혼합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조현아(2013)는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의 연구 현황과 학술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방법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통합적 연구로 범주화하였으며, 연구 유형을 실험 연구, 기술 연구, 역사 연구, 철학 연구 개발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 유형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하위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적 연구

양적 연구는 실험 연구와 기술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Wheeler, 2016). 실험은 크게 조작과 관찰을 통해 이뤄지는데 실험 연구에서 연구자는 독립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여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측정도구의 정확성 확보, 대표 표본 추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Aigen, 1993; Wimmer & Dominick, 2006). 실험 연구는 집단의 유무에 따라 단일대상 연구와 실험통제집단 연구로 분류하는데 단일대상 연구에서는 중재의 효과에 따른 개별 대상의 변화를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고(성태제, 시기자, 2020; 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14), 실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험통제집단 연구에서는 실험처치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중재 여부에 따른 중재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기술 연구는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인 환경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관찰하고 수량화하여 설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관찰, 설문, 면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현상이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기술한다(Koh & Owen, 2000).

본 연구에서는 Prickett(2005), Wheeler와 Kenny(2005)의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 유형을 분류한 김경숙, 이상은(2016)의 분류를 참고하여 양적 연구를 실

험 연구와 기술 연구로 범주화하여 이를 다시 실험 연구는 단일대상 연구, 실험통제집단 연구로, 기술 연구는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메타분석·분석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②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성질을 통찰하여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접근하는 연구 유형으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해석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조용환, 2004; 조현아, 2013).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진 사례 연구, 역사 연구, 철학 연구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김경숙, 이상은, 2016; 김영신, 박지은, 2011).

현상학적 연구는 어떠한 경험이나 현상에 나타나는 개인적 경험을 수량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연구 방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의 여러 측면을 밝혀내고,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고명한, 2010; Creswell, 2013). 근거이론 연구는 특정한 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연구자가 수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고 코딩하는 귀납적 과정을 거쳐 이론을 생성하고 증명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3, Wheeler, 2016). 합의적 질적 연구는 개방적 질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자를 포함한 세 명 이상의 평정자와 한 명 이상의 감수자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합의적으로 결과를 추론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Hill, 2012; 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 사례 연구는 관찰, 면담, 일지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 행동,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Creswell, 2013), 경우에 따라 질적 자료와 더불어

양적 자료를 활용한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Yin, 2003; Ullste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진 사례 연구를 질적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에서 아직 수행되지 않은 철학 연구와 역사 연구를 제외하고 현상학적 연구 연구, 근거이론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 내용분석으로만 이루어진 사례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국외 음악치료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 연구한 Aigen(2008)은 질적 연구의 수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중 근거이론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보고하였으며, 국내 음악치료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 연구한 김영신과 박지은(2011)은 국내 질적 연구가 양적인 측면에서 점차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연구 설계 유형이 시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③ 혼합 연구

혼합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 방법으로 빈도수, 체크리스트, 비율척도 등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통해 하나 또는 여러 사례를 탐색한다(Creswell, 2014; Radocy, 1995; Tashakkori & Creswell, 2008). 사례 연구는 개인이나 사건, 혹은 프로그램이라는 특정한 경계를 가진 사례를 탐구함에 있어 각 사례가 가지는 독특성과 복잡성에 초점을 맞춰 맥락 안에서 그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 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Stake, 1995).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구분하여 사례 연구 중에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함께 분석된 사례 연구를 혼합 연구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치료 연구와 임상에서는 혼합 연구를 통해 내담자, 음악치료사 모두에게 보다 풍부

한 경험, 현상에 대한 다각도의 정보와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Brardt, Burns, & Creswell, 2013). 국내 음악치료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 연구한 김영신과 박지은(2011)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한 통합연구는 학제화 초기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2004년 이후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질적 사례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 유형이 나타난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보고하여 학제화 초기부터 꾸준히 혼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분류 기준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나 연령, 진단 및 임상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눌 수 있다(김경숙, 이상은, 2016; Brown & Jellison, 2012).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서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국제아동인권센터, 2022), 연구 참여자의 연령별 기준은 연구자마다 상이하나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생후부터 만 2세까지를 영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를 유아, 만 6세부터 만 11세까지를 학령기 아동,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옥분, 2019). 음악치료 분석 연구에서 성인기 이전의 연구 참여자의 연령별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조현아(2013)는 연구 참여자를 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범주화하였고, 김경숙과 이상은(2016)은 영아와 유아를 아동에 포함시켜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취학 여부 및 소속된 교육기관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범주화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임진석, 2007; 황은영, 박소연, 2012).

본 연구에서는 정옥분(2010; 2019)과 Rice & Dolgin(2008)의 분류를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의 연령별 분류 기준을 영아, 유아, 학령기 아동, 청소년으로 범주화하고, 연구에서 구체적인 연령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교육기관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경우 초등학생은 학령기 아동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한 편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 범위가 중복되어 분류되는 경우 혼합 연령으로, 대상자의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타 연령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분석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진단 및 임상적 특성에 따른 분석도 시행되었다. 선행연구(김경숙, 이상은, 2016; Salomon-Gimmon & Elefant, 2019)에서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질병 분류 기준인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ICD-11) 또는 각 국가의 장애 대상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을 기준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김은주(1999)는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의 진단 특성을 장애 대상과 일반 대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미경(2006)은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범주화하고, 장애 아동의 진단명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아동의 진단 특성을 장애 대상, 비장애 대상, 일반 의료 환자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이영화, 2009; 조현아, 2013).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진단 특성을 장애 및 질병에 관한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비장애 대상,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과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ICD-11)에 의한 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은 장애 대상, 단회기성 진료 대상, 일반 입원 환자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은 의학적 진단 대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한 연구에서 둘 이상의 연구 참여자를 다루는 경우 혼합 연령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3) 중재 목적 영역

중재 목적 영역은 인간의 발달 영역에 따라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언어 영역, 사회 영역, 정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음악을 중재 도구로 활용하는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음악 영역을 중재 목적 영역으로 포함시켜 분류하였다(김경숙, 이상은, 2016; Boxill, 1985; Davis, Gfeller와 Thaut, 2008).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변인들을 다루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중재 변인을 각 연구자가 고안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김경숙과 이상은(2016)은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재 목적 영역을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언어 영역, 사회 영역, 정서 영역, 음악 영역, 기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영화(2009)는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재 목적 영역을 사회·정서 영역, 인지·행동 영역, 언어·의사소통 영역, 감각·운동 영역, 생리적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 영역에 따라 중재 목적 영역을 분류한 선행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여 분석 자료에서 도출된 중재 목적 영역을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언어 영역, 사회 영역, 정서 영역, 음악 영역, 기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감각발달, 감각통합, 운동성, 보행, 대근육/소근육, 맥박, 심박변이도 등은 신체 영역, 학습기술, 기억력, 주의력, 모방, 정서지능, 다중기능, 현실인식, 학습동기 등은 인지 영역, 표현언어 및 수용언어, 의사소통, 음성, 언어유창성 등은 언어 영역, 상호작용, 집단 응집력, 대인관계, 사회성, 사회적 지지, 부적응 등은 사회 영역, 정서적 반응, 감정 표현, 감정 조절, 자아개념 등은 정서 영역, 음악요소 지각/변별/인식, 음악선호도, 음악적 경험, 음악 표현 등은 음악 영역, 여섯 가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또는 중재 목적 영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기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한 편의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중재 목적 영역이 도출되었을 경우 각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 음악치료 중재 방법

Bruscia(1998)는 음악치료 기법을 수용적 기법, 작곡 기법, 즉흥 기법, 재창조 기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용적 기법은 음악 감상, 노래나 가사 토의 등이 있고, 작곡 기법은 노래 만들기와 노래 작곡, 기악곡 작곡, 음악 콜라주 등이 있다. 즉흥 기법은 기악 즉흥 연주, 즉흥 성악, 신체 동작을 활용한 즉흥 연주 등이 있고, 재창조 기법은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신체 동작 등이 있다. Darrow(2006)는 음악치료 접근법을 음악교육에서 변형된 접근법, 음악심리치료 접근법, 의료적 음악치료 접근법으로 분류하였다.

음악치료 분석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기법을 활용한 연구와 더불어 다른 예술 매체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도 적지 않음을 보고하였으며(임진석, 2007), 김경숙과 이상은(2016)은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음악 변인의 형태를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음악 감상, 음악 자극, 음악자서전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제공한 연구를 포함한 음악 활동, 창조적 음악치료, 치료적 악기수행(TIMP), 다양한 모델을 복합적으로 제공한 연구를 포함한 음악치료모델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uscia(1998)의 분류를 참고하여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노래 활동, 연주 활동, 즉흥 음악 활동, 감상 활동, 작곡 활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음악 외 매체와 결합된 음악치료 중재활동은 Darrow(2006)의 분류를 참고하여 결합 중재 방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병용한 활동은 혼합 중재 방법으로 범주화하고,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타 중재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5) 측정도구

연구자들은 내담자의 필요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변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음악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동향을 분

석하는 것은 측정도구의 유효성과 적용성을 명확하게 하여 음악치료 중재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김경숙, 이상은, 2015; Standley, 1986). 김경숙과 이상은(2015)은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진단평가 도구 개발유형에 따라 측정도구를 국내 개발 진단평가 도구, 국외 개발 진단평가 도구, 연구자 구성 진단평가 도구, 측정 기계 및 장치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은과 김경숙(2015)의 분류를 참고하여 평가 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측정도구 또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표준화 도구로, 국내외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재구성하여 신뢰도만 확보한 측정도구는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로, 국내외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재구성하여 타당도만 확보한 측정도구는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로,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경우는 측정 기계 및 장치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3) 전문가 타당도 검증 및 수정

고안된 분석틀 및 분석항목과 분류기준의 적합성을 검증받기 위하여 2021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에 걸쳐 음악치료 전문가 3인에게 설문지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다. 전문가는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평균 20년 이상 임상 경력의 음악치료사와 음악치료 전공 교수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틀이 국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분석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항목 및 분류 기준의 적절성, 분류의 이론적 근거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각 분석 항목별 분류 기준에 따라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조언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양

적 체크리스트는 1-5점 형식의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번 매우 부적합, 2번 부적합, 3번 보통, 4번 적합, 5번 매우 적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질적 평가와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조언 항목은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분석항목과 분류기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분석틀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4종에 게재된 아동 대상 연구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시행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분석을 위한 분석틀의 평가와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유형

<표 III-1> 연구 유형 평가

연구 유형의 분류 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5.0	
전문가 B	5.0	적절하게 분류하였음
전문가 C	5.0	
수정내용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수정하지 않음	

연구 유형의 분류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5.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질적 평가에서 연구 유형의 분류가 적절하게 분류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유형은 고안된 분석틀을 수정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2) 연구 참여자

① 연구 참여자 연령

<표 III-2> 연구 참여자 연령 평가

연구 참여자 연령의 분류 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5.0	학령기, 청소년기의 연령 범위를 세분화한 분류 고려
전문가 B	4.0	연구 참여자에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 기술
전문가 C	5.0	
수정내용	1. 학령기 아동을 학령전기와 학령후기로, 청소년기를 청소년 전기와 청소년 중기로 세분화하여 분류	

연구 참여자의 연령별 분류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6점으로 평가했으며, 질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A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기의 연령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전문가 B는 청소년이 연구 참여자에 포함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를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정옥분, 2010; Rice & Dolgin, 2008)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학령기 아동을 학령전기(만 4-5세)와 학령후기(만 6-11세)로, 청소년기를 청소년 전기(12-14세)와 청소년 중기(15-17세)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② 연구 참여자 진단적 및 임상적 특성

<표 III-3> 연구 참여자 진단적 특성 평가

연구 참여자 진단 특성의 분류 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5.0	
전문가 B	5.0	
전문가 C	5.0	
수정내용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수정하지 않음	

연구 참여자 진단적 특성의 분류 기준의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5.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유형은 고안된 분석틀을 수정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표 III-4>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평가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의 분류 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수정 및 보완 내용)
전문가 A	4.0	하위범주가 중복되거나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 구분 및 부연 설명 필요
전문가 B	5.0	
전문가 C	4.0	장애 대상의 임상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류 고려
수정내용	1. 각 범주에 따른 임상적 특성을 구분하여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분류 2. 둘 이상의 임상적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 또는 임상적 특성이 상이한 연구 참여자를 한 연구에서 다룬 경우 혼합 임상적 특성 범주로 분류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 분류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3점으로 평가했으며, 질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A는 하위범주가 중복되거나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구분과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 C는 분류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장애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상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장애 대상 임상적 특성의 분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각 범주에 따른 임상적 특성을 구분하여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분류하였다. 둘 이상의 임상적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 또는 임상적 특성이 상이한 연구 참여자를 한 연구에서 다른 경우 혼합 임상적 특성 범주로 분류하였다.

(3) 중재 목적 영역

<표 III-5> 중재 목적 영역 평가

중재 목적 영역의 분류 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5.0	
전문가 B	5.0	
전문가 C	5.0	
수정내용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수정하지 않음	

중재 목적 영역의 분류 기준의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5.0점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유형은 고안된 분석틀을 수정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4) 음악치료 중재 방법

<표 III-6> 음악치료 중재 방법 평가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분류 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4.0	1. 신경학적 음악치료의 치료기법 중 하나인 RAS를 결합 중재 활동으로 분류한 이유 설명 필요
전문가 B	5.0	2. 즉흥연주와 음악하기의 분류에 대한 설명 필요
전문가 C	4.0	1. 범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하위 항목의 대표성에 대한 숙고 필요 2. 가사 만들기는 음악하기 범주에 더 적합 3. 음악치료모델 범주를 추가할 것을 제안
수정내용	1. 각 범주명을 재정의하고, 세부 활동에 대한 상세 설명 제시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분류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3점으로 평가했다. 질적 평가에서 전문가 A는 신경학적 음악치료의 치료기법을 결합 중재 활동으로 분류한 이유, 즉흥연주와 음악하기를 구분하여 분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전문가 C는 노래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음악치료모델 범주를 추가하여 MIT, RAS, TIMP와 같은 음악치료 기법들을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사 만들기는 음악하기의 분류에 더 적합하고, 결합 중재 방법 범주는 하위 항목을 대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가상 악기를 활용한 연주 활동도 점차 증가한다는 점에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연주 활동을 악기 연주와 구별하여 결합 중재 활동으로 분류한 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각 범주명을 재정의하고 세부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5) 측정도구

<표 III-7> 측정도구 평가

측정도구의 분류 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5.0	
전문가 B	5.0	
전문가 C	5.0	
수정내용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수정하지 않음	

측정도구의 분류 기준의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5.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유형은 고안된 분석틀을 수정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3. 분석항목

1) 연구 유형

본 연구에서 연구 유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 연구는 실험 연구와 기술 연구로 범주화하여 실험 연구는 단일대상 연구, 실험통제집단 연구로, 기술 연구는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메타분석·분석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 사례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양적·질적으로 분석된 사례 연구는 혼합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둘 이상의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기타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유형의 분류 기준은 <표 III-8>에 제시되었다.

<표 III-8> 연구 유형의 분류 기준

연구 유형	분류 기준	
양적 연구	실험 연구	단일대상 연구 실험통제집단 연구
	기술 연구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메타분석·분석연구
질적 연구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 사례 연구
혼합 연구	양적·질적으로 분석된 사례 연구	
기타 연구	둘 이상의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령, 진단에 따른 임상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인간의 생물학적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만 0-1세), 유아(만 2-3세), 학령전기(만 4-5세), 학령후기(만 6-11세), 청소년 전기(만 12-14세), 청소년 중기(만 15-17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한 편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 범위가 중복되어 분류되는 경우 혼합 연령으로, 대상자의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타 연령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의 분류 기준은 <표 III-9>에 제시되었다.

<표 III-9> 연구 참여자 연령의 분류 기준

연구 참여자	연령	발달 단계
영아	만 0-1세	영아기
유아	만 2-3세	유아기
학령기 아동	만 4-5세	학령전기
	만 6-11세	학령후기
청소년	만 12-14세	청소년 전기
	만 15-17세	청소년 중기
혼합 연령	대상자의 연령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기타 연령	대상자의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구 참여자의 진단에 따른 임상적 특성은 비장애 대상, 장애 대상, 의학적 진단 대상, 혼합 대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비장애 대상은 사별 경험 아동, 학습부진 아동, 새터민 가정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저소득층 가정 아동, 학대 경험 아동, 위기청소년, 유소년 축구선수 등 장애 및 질병에 관하여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장애 대상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 또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 의한

진단을 받은 대상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의학적 진단 대상은 집중치료실 환자, 암 환자, 말기 질환 환자, 종양 환자, 재활 환자, 화상 환자 등 일반 입원 환자 및 예방접종, 단회기성 진료 등을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둘 이상의 임상적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 또는 임상적 특성이 상이한 연구 참여자를 한 연구에서 다룬 경우 혼합 대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 특성의 분류 기준은 <표 III-10>에 제시되었다.

<표 III-10>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의 분류 기준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비장애 대상	사별 경험 아동, 학습부진 아동, 새터민 가정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저소득층 가정 아동, 학대 경험 아동, 위기 청소년, 유소년 축구선수 등 장애 및 질병에 관하여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장애 대상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또는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ICD-11)에 의한 진단을 받은 대상
의학적 진단 대상	집중치료실 환자, 암 환자, 말기 질환 환자, 종양 환자, 재활 환자, 화상 환자 등 일반 입원 환자 및 예방접종, 단회기성 진료 등을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
혼합 대상	둘 이상의 임상적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 또는 임상적 특성이 상이한 연구 참여자를 한 연구에서 다룬 경우

분석 자료에서 도출된 연구 참여자 중 장애 대상은 임상적 특성에 따라 정신장애, 신경발달장애, 정서행동장애, 신체장애, 중독장애, 신경인지장애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장애 대상 임상적 특성의 분류 기준은 <표 III-11>에 제시되었다.

<표 III-11> 장애 대상 임상적 특성의 분류 기준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장애 대상	정신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섭식장애
	신경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범주성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
	신체장애	감각장애, 지체장애
	중독장애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신경인지장애	뇌성마비, 뇌손상

3) 중재 목적 영역

본 연구에서 중재 목적 영역은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언어 영역, 사회 영역, 정서 영역, 음악 영역,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별 하위 항목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한 편의 연구에서 중재 목적 영역이 두 가지 이상 도출되었을 경우 각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의 분류 기준은 <표 III-12>에 제시되었다.

<표 III-12> 중재 목적 영역의 분류 기준

중재 목적 영역	중재 목적 영역에 따른 세부 항목
신체 영역	감각발달, 감각통합, 운동성, 보행, 대근육/소근육, 맥박/심박변이도 등
인지 영역	학습기술, 기억력, 주의력, 모방, 정서지능, 다중기능, 현실인식, 학습동기 등
언어 영역	표현언어 및 수용언어, 의사소통, 음성, 언어 유창성 등
사회 영역	상호작용, 집단 응집력, 대인관계, 사회성, 사회적 지지, 부적응 등
정서 영역	정서적 반응, 감정 표현, 감정 조절, 자아개념 등
음악 영역	음악요소 지각/변별/인식, 음악선호도, 음악적 경험, 음악 표현 등
기타 영역	상기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또는 미기재된 경우

4) 음악치료 중재 방법

본 연구에서 음악치료 중재 방법은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내용에 따라 노래 활동, 연주 활동, 즉흥 음악 활동, 감상 활동, 작곡 활동, 결합 중재 방법, 혼합 중재 방법, 기타 중재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치료 중재 방법에 따른 세부 활동으로 발성 모방, 노래 부르기, 합창 등 미리 작곡된 노래를 목소리로 재현하는 구조화된 노래 활동은 노래 활동으로 범주화하였고, 재창조된 기악 연주, 합주 등 미리 작곡된 악곡을 기존 악기나 가상 악기로 연주한 구조화된 연주 활동은 연주 활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즉흥 노래, 즉흥 연주, 신체 즉흥 등 비구조화된 음악 활동은 즉흥 음악 활동으로 범주화하였고, 녹음된 음악 또는 라이브 음악 감상, 감상 후 토의 등은 감상 활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랩, 노래나 기악곡 작곡, 개사하기, 음악 CD 제작 등 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작곡하는 활동은 작곡 활동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림, 문학, 연극, 동작 등 음악 외의 매체와 결합된 활동은 결합 중재 방법으로 범주화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병용한 활동은 혼합 중재 방법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중재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분류 기준은 <표 III-13>에 제시되었다.

<표 III-13>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분류 기준

음악치료 중재 방법	음악치료 중재 방법에 따른 세부 활동
노래 활동	발성 모방, 노래 부르기, 합창 등 미리 작곡된 노래를 목소리로 재현하는 구조화된 노래 활동
연주 활동	재창조된 기악 연주, 합주 등 미리 작곡된 악곡을 기존 악기나 가상 악기로 연주한 구조화된 연주 활동
즉흥 음악 활동	즉흥 노래, 즉흥 연주, 신체 즉흥 등 비구조화된 음악 활동
감상 활동	녹음된 음악 또는 라이브 음악 감상, 감상 후 토의 등
작곡 활동	랩, 노래나 기악곡 작곡, 개사하기, 음악 CD 제작 등 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작곡하는 활동
결합 중재 방법	그림, 문학, 연극, 동작 등 음악 외의 매체와 결합된 활동
혼합 중재 방법	두 가지 이상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병용한 활동
기타 중재 방법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5)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표준화 도구,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 기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분류 기준은 <표 III-14>에 제시되었다.

<표 III-14> 측정도구의 분류 기준

측정 도구	분류 기준
표준화 도구	표준화된 측정도구 또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국내외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재구성하여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국내외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재구성하여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경우
기타	상기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총 1,098편을 1차로 선정하였다. 2차 선별을 거쳐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9편을 최종 선정한 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음악치료 전문가이자 음악치료전공 교수인 전문가 3인에게 연구자가 고안한 분석틀의 적합성을 검증받아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에서 분석항목인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중재 목적, 음악치료 중재 방법,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정독한 후 분류틀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하였다. 분류기준이 모호하거나 상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원저자의 확인을 거치는 작업은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검토 및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완성된 분석틀에 따라 Excel(Microsoft Office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중재 목적 영역, 음악치료 중재 방법, 측정도구의 세부적인 분석 내용을 요약하여 코딩하고 각 영역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1) 연구 유형의 연도별 동향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연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가 59편(57.28%)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구 유형에 따라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양적 연구만 수행되다가 2004년부터 질적 연구와 혼합 연구 수행이 병행되면서 연구 유형이 확장되었다.

양적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실험 연구가, 2005년부터 기술 연구가 증가세를 보였다. 실험 연구는 2000년에 처음 수행되어 2003년, 2006년, 2013년,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수행되었고, 기술 연구는 2001년 처음 수행되어 2002년, 2009년, 2010년,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수행되었다.

양적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 연구 중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실험통제집단 연구가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단일대상 연구의 편수가 증가한 양상을 보였고, 기술 연구 중에서는 2005년까지 조사 연구만 수행되다가 2006년부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메타분석·분석연구의 수행이 병행되면서 기술 연구의 유형이 확장되었다.

질적 연구는 21편(20.39%)으로 2013년 연구된 현상학적 연구 1편을 제외하면 질적 사례 연구가 20편이 수행되어 연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질적

사례 연구는 2004년 처음 연구되어 2010년까지 매년 수행되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되지 않았고, 2015년, 2019년, 2020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혼합 연구는 23편(22.33%)으로 질적 연구와 비슷한 비중을 보였고, 2004년 처음 연구된 후 2011년, 2012년, 2016년 외에는 매년 수행되었다.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

연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실험 연구				기술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 이론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 사례 연구	혼합 연구	N(%)	
	단일 대상 연구	통계 집단 연구	n(%)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메타분석 분석연구	n(%)	n(%)							
															실험
1999	1	0	1(0.97)	0	0	0	0(0)	1(0.97)	0	0	0	0	0(0)	0(0)	1(0.97)
2000	2	0	2(1.94)	0	0	0	0(0)	2(1.94)	0	0	0	0	0(0)	0(0)	2(1.94)
2001	0	2	2(1.94)	1	0	0	1(0.97)	3(2.91)	0	0	0	0	0(0)	0(0)	3(2.91)
2002	1	1	2(1.94)	0	0	0	0(0)	2(1.94)	0	0	0	0	0(0)	0(0)	2(1.94)
2003	0	0	0(0)	1	0	0	1(0.97)	1(0.97)	0	0	0	0	0(0)	0(0)	1(0.97)
2004	2	3	5(4.85)	1	0	0	1(0.97)	6(5.82)	0	0	0	1	1(0.97)	2(1.94)	9(8.74)
2005	1	1	2(1.94)	3	0	0	3(2.91)	5(4.85)	0	0	0	4	4(3.88)	1(0.97)	10(9.71)
2006	0	0	0(0)	0	1	1	2(1.94)	2(1.94)	0	0	0	1	1(0.97)	2(1.94)	5(4.85)
2007	0	2	2(1.94)	0	1	0	1(0.97)	3(2.91)	0	0	0	2	2(1.94)	3(2.91)	8(7.77)
2008	0	0	0(0)	1	1	0	2(1.94)	2(1.94)	0	0	0	4	4(3.88)	1(0.97)	7(6.80)
2009	3	2	5(4.85)	0	0	0	0(0)	5(4.85)	0	0	0	3	3(2.91)	4(3.88)	12(11.65)
2010	1	0	1(0.97)	0	0	0	0(0)	1(0.97)	0	0	0	2	2(1.94)	1(0.97)	4(3.88)
2011	1	0	1(0.97)	2	0	0	2(1.94)	3(2.91)	0	0	0	0	0(0)	0(0)	3(2.91)
2012	1	2	3(2.91)	0	0	1	1(0.97)	4(3.88)	0	0	0	0	0(0)	0(0)	4(3.88)
2013	0	0	0(0)	0	1	0	1(0.97)	1(0.97)	1	0	0	0	1(0.97)	1(0.97)	3(2.91)
2014	1	0	1(0.97)	0	1	0	1(0.97)	2(1.94)	0	0	0	0	0(0)	1(0.97)	3(2.91)
2015	1	0	1(0.97)	1	1	0	2(1.94)	3(2.91)	0	0	0	1	1(0.97)	1(0.97)	5(4.85)
2016	0	1	1(0.97)	1	1	1	3(2.91)	4(3.88)	0	0	0	0	0(0)	0(0)	4(3.88)
2017	2	1	3(2.91)	0	0	0	0(0)	3(2.91)	0	0	0	0	0(0)	1(0.97)	4(3.88)
2018	0	1	1(0.97)	0	0	1	1(0.97)	2(1.94)	0	0	0	0	0(0)	2(1.94)	4(3.88)
2019	0	0	0(0)	0	0	2	2(1.94)	2(1.94)	0	0	0	1	1(0.97)	1(0.97)	4(3.88)
2020	0	1	1(0.97)	0	1	0	1(0.97)	2(1.94)	0	0	0	1	1(0.97)	2(1.94)	5(4.85)
N(%)	17	17	34(33.01)	11	8	6	25(24.27)	59(57.28)	1	0	0	20	21(20.39)	23(22.33)	103(100)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연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가 61편(63.54%)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구 유형에 따라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는 매년 수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실험 연구는 2002년, 2013년, 2016년, 2017년, 2020년을 외에는 매년 수행되어 기술 연구에 비해 연구 비중이 높았다.

양적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 연구 중에서는 2011년까지 실험통제집단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2015년 이후에는 단일대상 연구가 높은 비중으로 수행되었으며, 기술 연구 중에서는 2008년까지 조사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메타분석·분석연구만, 2013년 이후에는 조사 연구 2편이 수행된 2018년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개발 연구만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는 21편(21.88%)으로 질적 사례 연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현상학적 연구는 1999년, 2017년, 2020년에, 근거이론 연구는 2004년, 2014년에 수행되었다. 혼합 연구는 13편(13.54%)으로 2002년 처음 수행되었다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되지 않았고, 2007년부터 다시 수행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 이후 매년 수행되었다. 기타 연구는 2018년에 합의적 질적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를 동시에 활용한 연구 1편(1.04%)이 수행되었다.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도별 동향

연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N(%)
	실험 연구				기술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 이론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질적 사례 연구	혼합 연구	기타 연구		
	단일 대상 연구	통계 집단 연구	n(%)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메타분석	n(%)	n(%)								
															분석연구	
1999	0	1	1(1.04)	1	0	0	1(1.04)	2(2.08)	1	0	0	1	2(2.08)	0(0)	0(0)	4(4.17)
2000	1	0	1(1.04)	0	0	0	0(0)	1(1.04)	0	0	0	1	1(1.04)	0(0)	0(0)	2(2.08)
2001	1	4	5(5.21)	1	0	0	1(1.04)	6(6.25)	0	0	0	1	1(1.04)	0(0)	0(0)	7(7.29)
2002	0	0	0(0)	1	1	0	2(2.08)	2(2.08)	0	0	0	0	0(0)	1(1.04)	0(0)	3(3.13)
2003	1	1	2(2.08)	0	0	0	0(0)	2(2.08)	0	0	0	1	1(1.04)	0(0)	0(0)	3(3.13)
2004	0	2	2(2.08)	0	0	1	1(1.04)	3(3.13)	0	1	0	1	2(2.08)	0(0)	0(0)	5(5.21)
2005	2	1	3(3.13)	0	0	0	0(0)	3(3.13)	0	0	0	2	2(2.08)	0(0)	0(0)	5(5.21)
2006	2	3	5(5.21)	1	1	0	2(2.08)	7(7.29)	0	0	0	1	1(1.04)	0(0)	0(0)	8(8.33)
2007	0	2	2(2.08)	0	0	0	0(0)	2(2.08)	0	0	0	0	0(0)	1(1.04)	0(0)	3(3.13)
2008	0	1	1(1.04)	2	0	0	2(2.08)	3(3.13)	0	0	0	0	0(0)	1(1.04)	0(0)	4(4.17)
2009	2	3	5(5.21)	0	0	0	0(0)	5(5.21)	0	0	0	1	1(1.04)	0(0)	0(0)	6(6.25)
2010	0	1	1(1.04)	0	0	0	0(0)	1(1.04)	0	0	0	1	1(1.04)	1(1.04)	0(0)	3(3.13)
2011	0	4	4(4.17)	0	0	1	1(1.04)	5(5.21)	0	0	0	0	0(0)	0(0)	0(0)	5(5.21)
2012	1	1	2(2.08)	0	0	1	1(1.04)	3(3.13)	0	0	0	1	1(1.04)	0(0)	0(0)	4(4.17)
2013	0	0	0(0)	0	1	0	1(1.04)	1(1.04)	0	0	0	1	1(1.04)	1(1.04)	0(0)	3(3.13)
2014	1	1	2(2.08)	0	1	0	1(1.04)	3(3.13)	0	1	0	1	2(2.08)	0(0)	0(0)	5(5.21)
2015	1	0	1(1.04)	0	0	0	0(0)	1(1.04)	0	0	0	0	0(0)	1(1.04)	0(0)	2(2.08)
2016	0	0	0(0)	0	2	0	2(2.08)	2(2.08)	0	0	0	0	0(0)	1(1.04)	0(0)	3(3.13)
2017	0	0	0(0)	2	0	0	2(2.08)	2(2.08)	2	0	0	0	2(2.08)	1(1.04)	0(0)	5(5.21)
2018	3	0	3(3.13)	0	0	0	0(0)	3(3.13)	0	0	0	0	0(0)	2(2.08)	1(1.04)	6(6.25)
2019	2	1	3(3.13)	0	0	0	0(0)	3(3.13)	0	0	0	2	2(2.08)	2(2.08)	0(0)	7(7.29)
2020	0	0	0(0)	0	1	0	1(1.04)	1(1.04)	1	0	0	0	1(1.04)	1(1.04)	0(0)	3(3.13)
N(%)	17	26	43(44.79)	8	7	3	18(18.75)	61(63.54)	4	2	0	15	21(21.88)	13(13.54)	1(1.04)	96(100)

2) 연구 유형의 연구 특성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연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 59편(57.28%), 혼합 연구 23편(22.33%), 질적 연구 21편(20.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는 실험 연구 34편(33.01%), 기술 연구 25편(24.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 연구는 단일대상 연구와 실험 통제집단 연구가 각 17편씩 수행되어 연구 편수가 동일하였고, 기술 연구는 조사 연구 11편, 프로그램 개발 연구 8편, 메타분석·분석연구 6편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20편(19.42%), 현상학적 연구 1편(0.97%)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거이론 연구와 합의적 질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연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 61편(63.54%), 질적 연구 21편(21.88%), 혼합 연구 13편(13.54%), 기타 연구 1편(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는 실험 연구 43편(44.79%), 기술 연구 18편(18.75%) 순으로 나타나 실험 연구의 비중이 기술 연구의 2배 이상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 연구는 실험통제집단 연구 26편, 단일대상 연구 17편 순으로 나타났고, 기술 연구는 조사 연구 8편, 프로그램 개발 연구 7편, 메타분석·분석연구 3편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15편(15.63%), 현상학적 연구 4편(4.17%), 근거이론 연구 2편(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합의적 질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질적 연구 중 합의적 질적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를 동시에 활용한 연구는 기타 연구로 분류하였으며 기타 연구는 1편(1.04%)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유형에 따른 국내외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9편의 연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는 국내에서 57.28%, 국외에서 63.54%의 높은 비중으로 수행되어 국내외 모두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 유형이었으며, 그 중 실험 연구는 국내에서 34편(33.01%), 국외에서 43편(44.79%)이 수행되어 국내외에서 모두 수행 빈도가 높은 점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실험 연구는 국내에서는 기술 연구의 비중보다 약 9% 높은 반면, 국외에서는 기술 연구의 비중보다 약 25%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외의 실험 연구 비중이 더 높았다.

질적 연구는 국내외 모두 질적 사례 연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합의를 질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점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현상학적 연구는 국외에서 4.17%의 비중을 보인 반면, 국내에서는 0.97%에 그쳤고, 근거이론 연구는 국외에서 2.08%의 비중을 보인 반면, 국내에서는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외의 질적 연구가 더 다양하고 비중이 높았다.

혼합 연구는 국내에서는 22.33%이 수행되어 질적 연구 20.39%보다 연구 비중이 높은 반면, 국외에서는 13.54%이 수행되어 질적 연구 21.88%보다 연구 비중이 9.48% 낮아 국내외 연구 비중에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연구 유형에 따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비중은 국내외에서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

연구 유형		국내	국외	
실험 연구	단일대상 연구	17(16.50)	17(17.71)	
	실험통제집단 연구	17(16.50)	26(27.08)	
<i>n</i> (%)		34(33.01)	43(44.79)	
양적 연구	조사 연구	11(10.68)	8(8.33)	
	기술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8(7.77)	7(7.29)
		메타분석·분석연구	6(5.83)	3(3.13)
		<i>n</i> (%)	25(24.27)	18(18.75)
<i>n</i> (%)		59(57.28)	61(63.54)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1(0.97)	4(4.17)	
	근거이론 연구	0(0)	2(2.08)	
	합의적 질적 연구	0(0)	0(0)	
	질적 사례 연구	20(19.42)	15(15.63)	
	<i>n</i> (%)	21(20.39)	21(21.88)	
혼합 연구		23(22.33)	13(13.54)	
기타 연구		0(0)	1(1.04)	
<i>N</i> (%)		103(100)	96(100)	

2.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1-1) 연구 참여자 연령의 연도별 동향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에서 연구 참여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가 43편(43.75%)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영아, 유아, 혼합 연령, 기타 연령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는 2000년, 2003년, 2019년 외에는 매년 수행되었고, 그 중 학령후기 대상 연구가 26편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청소년 대상 연구는 23편(21.7%)으로 청소년 전기 대상 연구는 15편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수행되었고, 청소년 중기 대상 연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되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되지 않았고, 2018년에 1편이 수행되었다.

혼합 연령 대상 연구는 25편(22.33%)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수행되었으며, 기타 연령 대상 연구는 10편(9.71%)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편도 수행되지 않다가 2019년에 다시 수행되었다.

영아와 유아 대상 연구는 각 1편(0.97%)씩 수행되었고, 영아 대상 연구는 2005년에, 유아 대상 연구는 2007년에 수행되었다.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연도별 동향은 <표 IV-4>와 같다.

<표 IV-4>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연도별 동향

연도	영아	유아	학령기 아동			청소년			혼합 연령	기타 연령	N(%)
			학 령 전 기	학 령 후 기	n(%)	청소년 전기	청소년 중기	n(%)			
1999	0(0)	0(0)	0	1	1(0.97)	0	0	0(0)	0(0)	0(0)	1(0.97)
2000	0(0)	0(0)	0	0	0(0)	0	0	0(0)	2(1.94)	0(0)	2(1.94)
2001	0(0)	0(0)	1	1	2(1.94)	0	0	0(0)	1(0.97)	0(0)	3(2.91)
2002	0(0)	0(0)	2	0	2(1.94)	0	0	0(0)	0(0)	0(0)	2(1.94)
2003	0(0)	0(0)	0	0	0(0)	0	1	1(0.97)	0(0)	0(0)	1(0.97)
2004	0(0)	0(0)	1	3	4(3.88)	1	1	2(1.94)	3(2.91)	0(0)	9(8.74)
2005	1(0.97)	0(0)	1	3	4(3.88)	1	1	2(1.94)	2(1.94)	1(0.97)	10(9.71)
2006	0(0)	0(0)	0	1	1(0.97)	1	0	1(0.97)	2(1.94)	1(0.97)	5(4.85)
2007	0(0)	1(0.97)	2	1	3(2.91)	3	0	3(2.91)	0(0)	1(0.97)	8(7.77)
2008	0(0)	0(0)	2	1	3(2.91)	0	2	2(1.94)	1(0.97)	1(0.97)	7(6.8)
2009	0(0)	0(0)	3	4	7(6.80)	1	1	2(1.94)	3(2.91)	0(0)	12(11.65)
2010	0(0)	0(0)	0	1	1(0.97)	2	0	2(1.94)	0(0)	1(0.97)	4(3.88)
2011	0(0)	0(0)	0	2	2(1.94)	0	1	1(0.97)	0(0)	0(0)	3(2.91)
2012	0(0)	0(0)	1	0	1(0.97)	1	0	1(0.97)	1(0.97)	1(0.97)	4(3.88)
2013	0(0)	0(0)	1	1	2(1.94)	0	0	0(0)	1(0.97)	0(0)	3(2.91)
2014	0(0)	0(0)	1	0	1(0.97)	1	0	1(0.97)	0(0)	1(0.97)	3(2.91)
2015	0(0)	0(0)	0	1	1(0.97)	1	0	1(0.97)	3(2.91)	0(0)	5(4.85)
2016	0(0)	0(0)	0	2	2(1.94)	0	0	0(0)	2(1.94)	0(0)	4(3.88)
2017	0(0)	0(0)	2	0	2(1.94)	2	0	2(1.94)	0(0)	0(0)	4(3.88)
2018	0(0)	0(0)	0	1	1(0.97)	1	1	2(1.94)	1(0.97)	0(0)	4(3.88)
2019	0(0)	0(0)	0	0	0(0)	0	0	0(0)	2(1.94)	2(1.94)	4(3.88)
2020	0(0)	0(0)	0	3	3(2.91)	0	0	0(0)	1(0.97)	1(0.97)	5(4.85)
N(%)	1(0.97)	1(0.97)	17	26	43(41.75)	15	8	23(21.7)	25(22.33)	10(9.71)	103(100)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에서 연구 참여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혼합 연령 대상 연구가 53편(55.21%)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혼합 연령 대상 연구는 2015년과 2020년 외에는 매년 수행되었고, 2006년과 2007년에 연구 편수가 급증하였다.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는 18편(18.75%)으로 그 중 학령후기 대상 연구는 14편으로 연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령후기 대상 연구는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증가하였다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2014년 이후 다시 수행되었다. 학령전기 대상 연구는 2001년, 2009년, 2019년, 2020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청소년 대상 연구는 9편(9.38%)으로 2000년 중후반에는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청소년 전기 대상 연구는 2000년, 2012년, 2017년, 2020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청소년 중기 대상 연구는 2001년, 2005년, 2015년에 각 1편, 2017년에 2편이 수행되었다.

영아 대상 연구는 12편(12.5%)으로 2001년 1편, 2005년에 2편이 수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매년 수행되었으며, 2014년부터 격년 간격으로 1-2편씩 수행되었다. 기타 연령 대상 연구는 3편(3.13%)으로 1999년, 2007년, 2020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유아 대상 연구는 2001년에 1편(1.04%)이 수행되었다.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연도별 동향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연도별 동향

연도	영아	유아	학령기 아동			청소년			혼합 연령	기타 연령	N(%)
			학 령 전 기	학 령 후 기	n(%)	청소년 전기	청소년 중기	n(%)			
1999	0(0)	0(0)	0	0	0(0)	0	0	1(1.04)	3(3.13)	1(1.04)	4(4.17)
2000	0(0)	0(0)	0	0	0(0)	1	0	1(1.04)	1(1.04)	0(0)	2(2.08)
2001	1(1.04)	1(1.04)	1	2	3(3.13)	0	1	1(1.04)	1(1.04)	0(0)	7(7.29)
2002	0(0)	0(0)	0	1	1(1.04)	0	0	0(0)	2(2.08)	0(0)	3(3.13)
2003	0(0)	0(0)	0	0	0(0)	0	0	0(0)	3(3.13)	0(0)	3(3.13)
2004	0(0)	0(0)	0	2	4(4.17)	0	0	0(0)	2(2.08)	0(0)	5(5.21)
2005	2(2.08)	0(0)	0	1	1(1.04)	0	1	1(1.04)	1(1.04)	0(0)	5(5.21)
2006	0(0)	0(0)	0	1	1(1.04)	0	0	0(0)	7(7.29)	0(0)	8(8.33)
2007	0(0)	0(0)	0	0	0(0)	0	0	0(0)	2(2.08)	1(1.04)	3(3.13)
2008	1(1.04)	0(0)	0	2	2(2.08)	0	0	0(0)	1(1.04)	0(0)	4(4.17)
2009	2(2.08)	0(0)	1	1	2(2.08)	0	0	0(0)	2(2.08)	0(0)	6(6.25)
2010	1(1.04)	0(0)	0	0	0(0)	0	0	0(0)	2(2.08)	0(0)	3(3.13)
2011	1(1.04)	0(0)	0	0	0(0)	0	0	0(0)	4(4.17)	0(0)	5(5.21)
2012	0(0)	0(0)	0	0	0(0)	1	0	1(1.04)	3(3.13)	0(0)	4(4.17)
2013	0(0)	0(0)	0	0	0(0)	0	0	0(0)	3(3.13)	0(0)	3(3.13)
2014	2(2.08)	0(0)	0	1	1(1.04)	0	0	0(0)	2(2.08)	0(0)	5(5.21)
2015	0(0)	0(0)	0	1	1(1.04)	0	1	1(1.04)	0(0)	0(0)	2(2.08)
2016	0(0)	0(0)	0	0	0(0)	0	0	0(0)	3(3.13)	0(0)	3(3.13)
2017	1(1.04)	0(0)	0	0	0(0)	1	2	3(3.13)	1(1.04)	0(0)	5(5.21)
2018	1(1.04)	0(0)	0	1	1(1.04)	0	0	0(0)	4(4.17)	0(0)	6(6.25)
2019	0(0)	0(0)	1	1	2(2.08)	0	0	0(0)	5(5.21)	0(0)	7(7.29)
2020	0(0)	0(0)	1	0	1(1.04)	1	0	1(1.04)	0(0)	1(1.04)	3(3.13)
N(%)	12(12.5)	1(1.04)	4	14	18(18.75)	4	5	9(9.38)	53(55.21)	3(3.13)	96(100)

1-2) 연구 참여자 연령의 연구 특성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학령기 아동 46편(44.66%), 청소년 28편(27.18%), 혼합 연령 17편(16.5%), 기타 연령 10편(9.71%), 영아 1편(0.96%), 유아 1편(0.9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는 학령후기 26편(25.24%), 학령전기 17편(16.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연구는 청소년 전기 15편(14.56%), 청소년 중기 8편(7.77%)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혼합 연령이 51편(53.13%), 학령기 아동 19편(19.79%), 영아 12편(12.50%), 청소년 10편(10.42%), 기타 연령 3편(3.13%), 유아 1편(1.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은 학령후기 14편(14.58%), 학령전기 4편(4.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연구는 청소년 중기 5편(5.21%), 청소년 전기 4편(4.17%)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참여자 연령에 따른 국내외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9편의 연구 참여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에서 모두 학령기 아동 연구에서는 학령후기 대상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영아와 유아 대상 연구가 가장 적게 수행된 점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국외에서는 혼합 연령 대상 연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영아 대상 연구는 국내에서는 유아와 동일하게 1편(0.96%)이 수행된 반면, 국외에서는 12편(12.5%)이 수행되어 차이를 보였고, 연구 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 대상 음악

치료 연구의 비중은 국내외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다.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 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표 IV-6>과 같다.

<표 IV-6>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

연령		국내	국외
	영아	1(0.97)	12(12.5)
	유아	1(0.97)	1(1.04)
학령기 아동	학령전기	17(16.5)	4(4.17)
	학령후기	26(25.24)	14(14.58)
	<i>n</i> (%)	43(43.75)	18(18.75)
청소년	청소년전기	15(14.56)	4(4.17)
	청소년중기	8(7.77)	5(5.21)
	<i>n</i> (%)	23(21.7)	9(9.38)
	혼합 연령	25(22.33)	53(55.21)
	기타 연령	10(9.71)	3(3.13)
	<i>N</i> (%)	103(100)	96(100)

2-1)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의 연도별 동향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연도별 동향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 대상 연구가 52편(50.49%)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비장애 대상 연구는 2001년부터 매년 수행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 편수가 급증하였다.

장애 대상 연구는 41편(39.81%)로 2003년 외에는 매년 수행되었고, 그 중 신경발달장애 대상 연구는 32편으로 연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03년, 2011년, 2013년 외에는 매년 수행되었다. 정신장애 대상 연구는 2005년, 2013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신경발달장애 대상 연구는 2007년, 2010년, 2011년, 2015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신경인지 장애 대상 연구는 2001년, 2010년, 2011년, 2015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신체장애 대상 연구는 2017년과 2018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중독장애 대상 연구는 2010년에 1편이 수행되었고, 정서행동장애 대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혼합 대상 연구와 의학적 진단 대상 연구는 2000년대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혼합 대상 연구 7편(6.8%)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되었고, 의학적 진단 대상 연구 3편(2.91%)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편이 수행되었다.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연도별 동향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연도별 동향

연도	비장애 대상	장애 대상						n(%)	의학적 진단 대상	혼합 대상	N(%)
		정신장애	신경발달장애	정서행동장애	신체장애	중독장애	신경인지장애				
1999	0(0)	0	1	0	0	0	0	1(0.97)	0(0)	0(0)	1(0.97)
2000	0(0)	0	2	0	0	0	0	2(1.94)	0(0)	0(0)	2(1.94)
2001	2(1.94)	0	1	0	0	0	0	1(0.97)	0(0)	0(0)	3(2.91)
2002	1(0.97)	0	1	0	0	0	0	1(0.97)	0(0)	0(0)	2(1.94)
2003	1(0.97)	0	0	0	0	0	0	0(0)	0(0)	0(0)	1(0.97)
2004	4(3.88)	0	4	0	0	0	0	4(3.88)	1(0.97)	0(0)	9(8.74)
2005	6(5.83)	1	1	0	0	0	0	2(1.94)	1(0.97)	1(0.97)	10(9.71)
2006	1(0.97)	0	2	0	0	0	0	2(1.94)	0(0)	2(1.94)	5(4.85)
2007	4(3.88)	0	3	0	0	0	1	4(3.88)	0(0)	0(0)	8(7.77)
2008	2(1.94)	0	3	0	0	0	0	3(2.91)	1(0.97)	1(0.97)	7(6.8)
2009	8(7.77)	0	3	0	0	0	0	3(2.91)	0(0)	1(0.97)	12(11.65)
2010	1(0.97)	0	1	0	0	1	1	3(2.91)	0(0)	0(0)	4(3.88)
2011	1(0.97)	0	0	0	0	0	1	1(0.97)	0(0)	1(0.97)	3(2.91)
2012	3(2.91)	0	1	0	0	0	0	1(0.97)	0(0)	0(0)	4(3.88)
2013	2(1.94)	1	0	0	0	0	0	1(0.97)	0(0)	0(0)	3(2.91)
2014	2(1.94)	0	1	0	0	0	0	1(0.97)	0(0)	0(0)	3(2.91)
2015	2(1.94)	0	2	0	0	0	1	3(2.91)	0(0)	0(0)	5(4.85)
2016	3(2.91)	0	1	0	0	0	0	1(0.97)	0(0)	0(0)	4(3.88)
2017	2(1.94)	0	1	0	1	0	0	2(1.94)	0(0)	0(0)	4(3.88)
2018	2(1.94)	0	1	0	1	0	0	2(1.94)	0(0)	0(0)	4(3.88)
2019	2(1.94)	0	2	0	0	0	0	2(1.94)	0(0)	0(0)	4(3.88)
2020	3(2.91)	0	1	0	0	0	0	1(0.97)	0(0)	1(0.97)	5(4.85)
N(%)	52(50.49)	2	32	0	2	1	4	41(39.81)	3(2.91)	7(6.8)	103(100)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 대상 연구가 33편(34.38%)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비장애 대상 연구는 1999년부터 수행되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되지 않다가 2013년부터 매년 수행되었다. 정신장애 대상 연구는 2005년에 유일하게 2편이 연구되었고, 2000년, 2006년, 2012년, 2013년, 2015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정서행동장애 대상 연구는 2002년, 2003년, 2013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신체장애 대상 연구는 2001년, 2003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신체장애 대상 연구는 2001년, 2003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으며, 중독 장애와 신경인지장애 대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장애 대상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정신장애 대상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고, 신경발달장애 대상 연구는 21편으로 연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02년부터 꾸준히 수행되었다.

의학적 진단 대상 연구는 16편(16.67%)으로 2000년부터 연구되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수행되었다가 2014년에 2편, 2017년, 2018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혼합 대상 연구는 18편(18.75%)으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급증하였다.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연도별 동향은 <표 IV-8>과 같다.

<표 IV-8>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연도별 동향

연도	비장애 대상	장애 대상						n(%)	의학적 진단 대상	혼합 대상	N(%)
		정신장애	신경발달장애	정서행동장애	신체장애	중독장애	신경인지장애				
1999	2(2.08)	0	0	0	0	0	0	0(0)	0(0)	2(2.08)	4(4.17)
2000	0(0)	1	0	0	0	0	0	1(1.04)	1(1.04)	0(0)	2(2.08)
2001	5(5.21)	0	0	0	1	0	0	1(1.04)	0(0)	0(0)	6(6.25)
2002	0(0)	0	1	1	0	0	0	2(2.08)	0(0)	1(1.04)	3(3.13)
2003	0(0)	0	0	1	1	0	0	2(2.08)	0(0)	2(2.08)	4(4.17)
2004	2(2.08)	0	2	0	0	0	0	2(2.08)	1(1.04)	0(0)	5(5.21)
2005	2(2.08)	2	0	0	0	0	0	2(2.08)	1(1.04)	0(0)	5(5.21)
2006	0(0)	1	2	0	0	0	0	3(3.13)	2(2.08)	3(3.13)	8(8.33)
2007	1(1.04)	0	0	0	0	0	0	0(0)	1(1.04)	1(1.04)	3(3.13)
2008	0(0)	0	0	0	0	0	0	0(0)	1(1.04)	3(3.13)	4(4.17)
2009	2(2.08)	0	2	0	0	0	0	2(2.08)	2(2.08)	0(0)	6(6.25)
2010	0(0)	0	1	0	0	0	0	1(1.04)	2(2.08)	0(0)	3(3.13)
2011	0(0)	0	3	0	0	0	0	3(3.13)	1(1.04)	1(1.04)	5(5.21)
2012	0(0)	1	2	0	0	0	0	3(3.13)	0(0)	1(1.04)	4(4.17)
2013	1(1.04)	1	0	1	0	0	0	2(2.08)	0(0)	0(0)	3(3.13)
2014	1(1.04)	0	2	0	0	0	0	2(2.08)	2(2.08)	0(0)	5(5.21)
2015	1(1.04)	1	0	0	0	0	0	1(1.04)	0(0)	0(0)	2(2.08)
2016	2(2.08)	0	1	0	0	0	0	1(1.04)	0(0)	0(0)	3(3.13)
2017	2(2.08)	0	0	0	0	0	0	0(0)	1(1.04)	2(2.08)	5(5.21)
2018	3(3.13)	0	1	0	0	0	0	1(1.04)	1(1.04)	1(1.04)	6(6.25)
2019	3(3.13)	0	3	0	0	0	0	3(3.13)	0(0)	1(1.04)	7(7.29)
2020	2(2.08)	0	1	0	0	0	0	1(1.04)	0(0)	0(0)	3(3.13)
N(%)	29(30.21)	7	21	3	2	0	0	33(34.38)	16(16.67)	18(18.75)	96(100)

2-2)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의 연구 특성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 대상 연구 52편(50.49%), 장애 대상 연구 41편(39.81%), 혼합 대상 연구 7편(6.8%), 의학적 진단 대상 연구 3편(2.9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대상 연구는 신경발달장애 대상 연구 32편(31.07%), 신경인지장애 대상 연구 4편(3.88%), 정신장애 대상 연구와 신체장애 대상 연구 각 2편(1.94%), 중독 장애 대상 연구 1편(0.97%)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 대상 연구 33편(34.38%), 비장애 대상 연구 29편(30.21%), 혼합 대상 연구 18편(18.75%), 의학적 진단 대상 연구 16편(16.6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대상 연구는 신경발달장애 대상 연구 21편(21.88%), 정신장애 대상 연구 7편(7.29%), 정서행동장애 대상 연구 3편(3.13%), 신체장애 대상 연구 2편(2.08%)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국내외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9편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 대상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신경발달장애 대상, 그 중에서도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대상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신체장애 대상 연구는 2편이 수행된 점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장애 대상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국외에서는 장애 대상 연구의 비중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장애 대상 연구는 국내에서 정서행동장애 대상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반면, 국

외에서는 중독장애 대상 연구와 신경인지장애 대상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의학적 진단 대상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가장 적게 수행된 점은 유사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연구 비중이 2.91%에 그친 반면, 국외에서는 16.67%로 나타났고, 혼합 대상 연구는 국내에서는 6.8%에 그친 반면, 국외에서는 18.75%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비중은 국내외에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은 <표 IV-9>와 같다.

<표 IV-9>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임상적 특성

임상적 특성	국내	국외	
비장애 대상	52(50.49)	29(30.21)	
장애 대상	정신장애	2(1.94)	7(7.29)
	신경발달장애	32(31.07)	21(21.88)
	정서행동장애	0(0)	3(3.13)
	신체장애	2(1.94)	2(2.08)
	중독장애	1(0.97)	0(0)
	신경인지장애	4(3.88)	0(0)
	<i>n</i> (%)	41(39.81)	33(34.38)
의학적 진단 대상	3(2.91)	16(16.67)	
혼합 대상	7(6.8)	18(18.75)	
<i>N</i> (%)	103(100)	96(100)	

3.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1) 중재 목적 영역의 연도별 동향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중재 목적 영역을 분석한 결과, 정서 영역을 활용한 연구가 38편(34.86%)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중재 목적 영역에 따라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 기타 영역을 활용한 연구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연구가 비슷한 비중으로 수행되다가 2008년부터 점차 정서 영역과 사회 영역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정서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2001년부터 수행되어 2002년, 2013년 외에 매년 수행되었고, 사회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19편(17.43%)으로 1999년에 중재 목적 영역을 활용한 연구 중 처음 연구되어 2006년부터 평균 1-2편씩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3편이 수행된 2009년에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신체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7편(6.42%)으로 2001년에 1편이 수행된 후 2006년까지 수행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4편이 수행되었고 2015년에 처음으로 2편이 수행되었다. 음악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18편(16.51%)으로 2001년, 2003년에 1편씩 연구되었는데 2004년, 2005년에 각 4편씩 수행되어 연구 편수가 급증하였다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지, 언어, 기타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2010년대에 연구 편수가 감소하였는데 인지 영역은 14편(12.84%)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수행되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2013년에만 2편이 수행되었다. 언어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9편(8.26%)으로 2004년부터 2008년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기타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4편(3.67%)으로 2006년에 1편, 2008년에 2편, 2014년에 1편이 수행되었다.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은 <표 IV-10>과 같다.

<표 IV-10>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

연도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언어 영역	사회 영역	정서 영역	음악 영역	기타 영역	N(%)
1999	0(0)	0(0)	0(0)	1(0.92)	0(0)	0(0)	0(0)	1(0.92)
2000	0(0)	1(0.92)	1(0.92)	0(0)	0(0)	0(0)	0(0)	2(1.83)
2001	1(0.92)	1(0.92)	0(0)	1(0.92)	2(1.83)	1(0.92)	0(0)	6(5.5)
2002	0(0)	1(0.92)	0(0)	1(0.92)	0(0)	0(0)	0(0)	2(1.83)
2003	0(0)	0(0)	0(0)	0(0)	1(0.92)	1(0.92)	0(0)	2(1.83)
2004	0(0)	2(1.83)	2(1.83)	0(0)	2(1.83)	4(3.67)	0(0)	10(9.17)
2005	0(0)	1(0.92)	1(0.92)	0(0)	4(3.67)	4(3.67)	0(0)	10(9.17)
2006	0(0)	1(0.92)	1(0.92)	1(0.92)	1(0.92)	0(0)	1(0.92)	5(4.59)
2007	1(0.92)	2(1.83)	1(0.92)	1(0.92)	2(1.83)	1(0.92)	0(0)	8(7.34)
2008	1(0.92)	0(0)	1(0.92)	1(0.92)	4(3.67)	0(0)	2(1.83)	9(8.26)
2009	0(0)	2(1.83)	0(0)	3(2.75)	5(4.59)	2(1.83)	0(0)	12(11.01)
2010	1(0.92)	2(1.83)	0(0)	2(1.83)	1(0.92)	0(0)	0(0)	6(5.5)
2011	1(0.92)	0(0)	0(0)	0(0)	1(0.92)	1(0.92)	0(0)	3(2.75)
2012	0(0)	0(0)	0(0)	1(0.92)	2(1.83)	0(0)	0(0)	3(2.75)
2013	0(0)	0(0)	2(1.83)	0(0)	0(0)	1(0.92)	0(0)	3(2.75)
2014	0(0)	0(0)	0(0)	1(0.92)	1(0.92)	0(0)	1(0.92)	3(2.75)
2015	2(1.83)	0(0)	0(0)	1(0.92)	1(0.92)	1(0.92)	0(0)	5(4.59)
2016	0(0)	1(0.92)	0(0)	1(0.92)	1(0.92)	1(0.92)	0(0)	4(3.67)
2017	0(0)	0(0)	0(0)	2(1.83)	2(1.83)	1(0.92)	0(0)	5(4.59)
2018	0(0)	0(0)	0(0)	0(0)	3(2.75)	0(0)	0(0)	3(2.75)
2019	0(0)	0(0)	0(0)	0(0)	2(1.83)	0(0)	0(0)	2(1.83)
2020	0(0)	0(0)	0(0)	2(1.83)	3(2.75)	0(0)	0(0)	5(4.59)
N(%)	7(6.42)	14(12.84)	9(8.26)	19(17.43)	38(34.86)	18(16.51)	4(3.67)	109(100)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중재 목적 영역을 분석한 결과, 정서 영역을 활용한 연구가 36편(35.64%)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중재 목적 영역에 따라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정서 영역은 2002년, 2003년, 2011년 외에 매년 수행되었고 2006년 전후에 연구 비중의 증감폭이 가장 높았다.

사회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19편(18.81%)으로 2000년, 2001년에 각 1편, 2003년 처음으로 2편이 수행되었다가 2006년 다시 1편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이후에는 2016년, 2017년 외에 매년 1-2편이 수행되었다. 신체 영역과 언어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동일하게 12편(11.88%)이 수행되었으며, 신체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2001년 2편이 수행된 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07년 외에 매년 수행되었다가 2011년 이후로 연구 편수가 감소하였다. 언어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1999년, 2015년에 각 2편씩 수행되었고, 그 외 연도에는 각 1편씩 수행되었다.

인지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10편(9.9%)으로 2002년, 2003년에 각 1편, 2004년에 2편이 수행된 이후로 수행되지 않았고, 2009년에 다시 연구된 후 2014년부터 1-2년에 1편씩 수행되었다. 음악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7편(6.93%)으로 1999년, 2002년, 2005년, 2006년에 각 1편, 2008년에 3편이 수행되었다. 기타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5편(4.95%)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편이 수행되었으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되지 않았고, 2013년 1편이 수행되었다.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은 <표 IV-11>과 같다.

<표 IV-11>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연도별 동향

연도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언어 영역	사회 영역	정서 영역	음악 영역	기타 영역	N(%)
1999	0(0)	0(0)	2(1.98)	0(0)	0(0)	1(0.99)	1(0.99)	4(3.96)
2000	0(0)	0(0)	0(0)	1(0.99)	1(0.99)	0(0)	1(0.99)	2(1.95)
2001	2(1.98)	0(0)	1(0.99)	1(0.99)	3(2.97)	0(0)	0(0)	8(7.92)
2002	0(0)	1(0.99)	0(0)	0(0)	0(0)	1(0.99)	1(0.99)	3(2.97)
2003	0(0)	1(0.99)	0(0)	2(1.98)	0(0)	0(0)	0(0)	3(2.97)
2004	1(0.99)	2(1.98)	1(0.99)	0(0)	2(1.98)	0(0)	1(0.99)	7(6.93)
2005	2(1.98)	0(0)	1(0.99)	0(0)	1(0.99)	1(0.99)	0(0)	5(4.95)
2006	1(0.99)	0(0)	0(0)	1(0.99)	5(4.95)	1(0.99)	0(0)	8(7.92)
2007	0(0)	0(0)	1(0.99)	0(0)	2(1.98)	0(0)	0(0)	3(2.97)
2008	1(0.99)	0(0)	0(0)	0(0)	1(0.99)	3(2.97)	0(0)	5(4.95)
2009	1(0.99)	2(1.98)	0(0)	0(0)	3(2.97)	0(0)	0(0)	6(5.94)
2010	0(0)	0(0)	1(0.99)	1(0.99)	1(0.99)	0(0)	0(0)	3(2.97)
2011	1(0.99)	0(0)	2(1.98)	2(1.98)	0(0)	0(0)	0(0)	5(4.95)
2012	0(0)	0(0)	0(0)	1(0.99)	1(0.99)	0(0)	0(0)	2(1.95)
2013	0(0)	0(0)	0(0)	1(0.99)	1(0.99)	0(0)	1(0.99)	3(2.97)
2014	1(0.99)	1(0.99)	0(0)	2(1.98)	1(0.99)	0(0)	0(0)	5(4.95)
2015	0(0)	0(0)	1(0.99)	2(1.98)	1(0.99)	0(0)	0(0)	4(3.96)
2016	0(0)	1(0.99)	0(0)	0(0)	1(0.99)	0(0)	0(0)	2(1.98)
2017	1(0.99)	1(0.99)	0(0)	0(0)	4(3.96)	0(0)	0(0)	6(5.94)
2018	1(0.99)	0(0)	1(0.99)	2(1.98)	2(1.95)	0(0)	0(0)	6(5.94)
2019	0(0)	1(0.99)	1(0.99)	2(1.98)	4(3.96)	0(0)	0(0)	8(7.92)
2020	0(0)	0(0)	0(0)	1(0.99)	2(1.95)	0(0)	0(0)	3(2.97)
N(%)	12(11.88)	10(9.9)	12(11.88)	19(18.81)	36(35.64)	7(6.93)	5(4.95)	101(100)

2) 중재 목적 영역의 연구 특성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을 분석한 결과, 109개의 중재 목적 영역이 도출되었다. 중재 목적 영역은 정서 영역 38편(34.86%), 사회 영역 19편(17.43%), 음악 영역 18편(16.51%), 인지 영역 14편(12.84%), 언어 영역 9편(8.26%), 신체 영역 7편(6.42%), 기타 영역 4편(3.67%)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을 분석한 결과, 101개의 중재 목적 영역이 도출되었다. 중재 목적 영역은 정서 영역 36편(35.64%) 사회 영역 19편(18.81%), 신체 영역과 언어 영역은 각 12편(11.88%), 인지 영역 10편(9.90%), 음악 영역 7편(6.93%), 기타 영역 5편(4.95%) 순으로 나타났다.

(3) 중재 목적 영역에 따른 국내외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9편의 중재 목적 영역을 분석한 결과, 210개의 중재 목적 영역이 도출되었다. 국내외에서 모두 정서, 사회 영역을 활용한 연구 순으로 높은 수행 비중을 보였고, 기타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연구 비중이 가장 적은 점이 유사하였으나 그 외 중재 목적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이한 연구 비중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정서, 사회 영역을 활용한 연구 다음으로 음악, 인지, 언어, 신체 영역을 활용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고, 국외에서는 신체와 언어, 인지, 음악 영역을 활용한 연구 순으로 나타나 연구 비중의 차이를 보였다. 인지, 음악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국외보다 국내에서 높은 연구 비중을 보였고, 신체, 언어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의 연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음악 영역을 활용한 연구는 국내에서 16.51%의 비중으로 수행되었으나 국외에서는 6.93%에 그쳐 국내 연구 비중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신체 영역은 국내에서 6.42%의 비중으로 수행되었으나, 국외에서는 11.88%으로 나타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중재 목적 영역에 따른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비중이 차이가 있었다.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은 <표 IV-12>와 같다.

<표 IV-12>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중재 목적 영역	국내	국외
신체 영역	7(6.42)	12(11.88)
인지 영역	14(12.84)	10(9.9)
언어 영역	9(8.26)	12(11.88)
사회 영역	19(17.43)	19(18.81)
정서 영역	38(34.86)	36(35.64)
음악 영역	18(16.51)	7(6.93)
기타 영역	4(3.67)	5(4.95)
<i>N</i> (%)	109(100)	101(100)

4.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1)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연도별 동향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분석한 결과, 97개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도출되었고,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52편(53.61%)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음악치료 중재 방법에 따라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수행되었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연주, 감상, 노래 활동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다가 점차 즉흥 음악 활동, 작곡 활동, 결합 활동을 활용한 연구로 다양한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확대되었다.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2003년, 2012년, 2013년, 2014년 외에 매년 수행되었고, 특히 2000년대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기타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13편(13.4%)으로 2001년 처음 수행되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편씩 꾸준히 수행되었다가 2017년부터 수행되지 않았다. 연주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11편(11.34%)으로 2002년부터 수행되어 2006년부터 다시 수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단일 중재 연구 중에서 처음으로 3편이 수행되면서 연구 편수가 증가하였다.

감상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9편(9.28%)으로 2000년,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되지 않다가 2010년부터 다시 수행되었다. 노래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4편(4.12%)으로 2005년, 2006년, 2009년 각 1편이 수행되었고, 2010년 이후에 수행되지 않다가 2017년에 1편이 수행되었다.

즉흥 음악 활동과 작곡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각 3편(3.09%)씩 수행되었는

데 작곡 활동은 2008년, 2013년, 2018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즉흥 음악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2004년, 2012년, 2014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으며, 결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2편(2.06%)으로 2010년, 2020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연도별 동향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연도별 동향

연도	노래 활동	연주 활동	즉흥 음악 활동	감상 활동	작곡 활동	결합 중재 방법	혼합 중재 방법	기타 중재 방법	N(%)
1999	0(0)	0(0)	0(0)	0(0)	0(0)	0(0)	1(1.03)	0(0)	1(1.03)
2000	0(0)	0(0)	0(0)	1(1.03)	0(0)	0(0)	1(1.03)	0(0)	2(2.06)
2001	0(0)	0(0)	0(0)	0(0)	0(0)	0(0)	1(1.03)	2(2.06)	3(3.09)
2002	0(0)	1(1.03)	0(0)	0(0)	0(0)	0(0)	1(1.03)	0(0)	2(2.06)
2003	0(0)	0(0)	0(0)	1(1.03)	0(0)	0(0)	0(0)	0(0)	1(1.03)
2004	0(0)	0(0)	1(1.03)	1(1.03)	0(0)	0(0)	6(6.19)	1(1.03)	9(9.28)
2005	1(1.03)	0(0)	0(0)	1(1.03)	0(0)	0(0)	6(6.19)	2(2.06)	10(10.31)
2006	1(1.03)	1(1.03)	0(0)	0(0)	0(0)	0(0)	1(1.03)	1(1.03)	4(4.12)
2007	0(0)	3(3.09)	0(0)	0(0)	0(0)	0(0)	5(5.15)	0(0)	8(8.25)
2008	0(0)	0(0)	0(0)	0(0)	1(1.03)	0(0)	5(5.15)	1(1.03)	7(7.22)
2009	1(1.03)	1(1.03)	0(0)	0(0)	0(0)	0(0)	10(10.31)	0(0)	12(12.37)
2010	0(0)	0(0)	0(0)	1(1.03)	0(0)	1(1.03)	2(2.06)	0(0)	4(4.12)
2011	0(0)	1(1.03)	0(0)	1(1.03)	0(0)	0(0)	2(2.06)	1(1.03)	5(5.15)
2012	0(0)	0(0)	1(1.03)	0(0)	0(0)	0(0)	0(0)	0(0)	1(1.03)
2013	0(0)	0(0)	0(0)	0(0)	1(1.03)	0(0)	0(0)	2(2.06)	3(3.09)
2014	0(0)	1(1.03)	1(1.03)	0(0)	0(0)	0(0)	0(0)	1(1.03)	3(3.09)
2015	0(0)	0(0)	0(0)	2(2.06)	0(0)	0(0)	2(2.06)	1(1.03)	5(5.15)
2016	0(0)	1(1.03)	0(0)	0(0)	0(0)	0(0)	1(1.03)	1(1.03)	3(3.09)
2017	1(1.03)	1(1.03)	0(0)	0(0)	0(0)	0(0)	1(1.03)	0(0)	3(3.09)
2018	0(0)	0(0)	0(0)	1(1.03)	1(1.03)	0(0)	2(2.06)	0(0)	4(4.12)
2019	0(0)	0(0)	0(0)	0(0)	0(0)	0(0)	2(2.06)	0(0)	2(2.06)
2020	0(0)	1(1.03)	0(0)	0(0)	0(0)	1(1.03)	3(3.09)	0(0)	5(5.15)
N(%)	4(4.12)	11(11.34)	3(3.09)	9(9.28)	3(3.09)	2(2.06)	52(53.61)	13(13.4)	97(100)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분석한 결과, 98개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도출되었고,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33편(33.67%)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음악치료 중재 방법에 따라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2003년, 2008년, 2010년 외에 매년 수행되었으며, 2001년에는 4편이 수행되어 가장 연구 비중이 높았다. 단일 중재 방법 중에서는 감상 활동을 활용한 연구가 29편(29.59%)으로 집중적으로 활용되었고,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수행되었으며, 혼합 중재 방법보다 연구 수행 연도가 늦었음에도 연구 비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노래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8편(8.16%)으로 1999년, 2004년에 각 1편씩 수행되다가 2010년, 2018년, 2019년에 각 2편으로 연구 편수가 증가하였다. 즉흥 음악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7편(7.14%)으로 2003년에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수행되지 않았다. 연주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6편(6.12%)으로 2001년에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와 2012년과 2018년 사이에는 수행되지 않았다.

결합 중재 방법과 기타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각 5편(5.1%)씩 수행되었는데 결합 중재 방법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되었고, 기타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편이 수행되었다가 2011년까지 수행되지 않았고, 2013년과 2015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연도별 동향은 <표 IV-14>와 같다.

<표 IV-14>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연도별 동향

연도	노래 활동	연주 활동	즉흥 음악 활동	감상 활동	작곡 활동	결합 중재 방법	혼합 중재 방법	기타 중재 방법	N(%)
1999	1(1.02)	0(0)	0(0)	0(0)	0(0)	0(0)	2(2.04)	1(1.02)	4(4.08)
2000	0(0)	0(0)	0(0)	0(0)	0(0)	0(0)	2(2.04)	0(0)	2(2.04)
2001	0(0)	1(1.02)	0(0)	0(0)	0(0)	0(0)	4(4.08)	2(2.04)	7(7.14)
2002	0(0)	1(1.02)	0(0)	1(1.02)	0(0)	1(1.02)	2(2.04)	0(0)	5(5.1)
2003	0(0)	0(0)	1(1.02)	0(0)	0(0)	0(0)	0(0)	0(0)	1(1.02)
2004	1(1.02)	0(0)	0(0)	2(2.04)	0(0)	0(0)	2(2.04)	0(0)	5(5.1)
2005	0(0)	0(0)	1(1.02)	2(2.04)	1(1.02)	0(0)	2(2.04)	0(0)	6(6.12)
2006	0(0)	0(0)	1(1.02)	5(5.1)	0(0)	1(1.02)	1(1.02)	0(0)	8(8.16)
2007	0(0)	0(0)	0(0)	1(1.02)	0(0)	1(1.02)	2(2.04)	0(0)	4(4.08)
2008	0(0)	0(0)	0(0)	4(4.08)	0(0)	0(0)	0(0)	0(0)	4(4.08)
2009	0(0)	1(1.02)	0(0)	3(3.06)	0(0)	1(1.02)	1(1.02)	0(0)	6(6.12)
2010	2(2.04)	0(0)	0(0)	0(0)	1(1.02)	0(0)	0(0)	0(0)	3(3.06)
2011	0(0)	1(1.02)	0(0)	1(1.02)	0(0)	1(1.02)	1(1.02)	0(0)	4(4.08)
2012	0(0)	0(0)	1(1.02)	0(0)	0(0)	0(0)	2(2.04)	0(0)	3(3.06)
2013	0(0)	0(0)	0(0)	0(0)	1(1.02)	0(0)	1(1.02)	1(1.02)	3(3.06)
2014	0(0)	0(0)	0(0)	3(3.06)	0(0)	0(0)	2(2.04)	0(0)	5(5.1)
2015	0(0)	0(0)	0(0)	1(1.02)	0(0)	0(0)	2(2.04)	1(1.02)	4(4.08)
2016	0(0)	0(0)	1(1.02)	1(1.02)	0(0)	0(0)	1(1.02)	0(0)	3(3.06)
2017	0(0)	0(0)	0(0)	3(3.06)	0(0)	0(0)	2(2.04)	0(0)	5(5.1)
2018	2(2.04)	1(1.02)	0(0)	1(1.02)	0(0)	0(0)	2(2.04)	0(0)	6(6.12)
2019	2(2.04)	1(1.02)	1(1.02)	1(1.02)	1(1.02)	0(0)	1(1.02)	0(0)	7(7.14)
2020	0(0)	0(0)	1(1.02)	0(0)	1(1.02)	0(0)	1(1.02)	0(0)	3(3.06)
N(%)	8(8.16)	6(6.12)	7(7.14)	29(29.59)	5(5.1)	5(5.1)	33(33.67)	5(5.1)	98(100)

2) 음악치료 중재 방법의 연구 특성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분석한 결과, 97개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도출되었고,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 52편(53.61%), 기타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 13편(13.4%), 연주 활동을 활용한 연구 11편(11.34%), 감상 활동을 활용한 연구 9편(9.28%), 노래 활동을 활용한 연구 4편(4.12%), 즉흥 음악 활동을 활용한 연구와 작곡 활동을 활용한 연구 각 3편(3.09%), 결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 2편(2.06%)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분석한 결과, 98개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이 도출되었고,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 33편(33.67%), 감상 활동을 활용한 연구 29편(29.59%), 노래 활동을 활용한 연구 8편(8.16%) 즉흥 음악 활동을 활용한 연구 7편(7.14%), 연주 활동을 활용한 연구 6편(6.12%), 작곡 활동을 활용한 연구, 결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 기타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 각 5편(5.1%) 순으로 나타났다.

(3) 중재 방법에 따른 국내외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9편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분석한 결과, 195개의 중재 목적 영역이 도출되었다. 혼합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이 유사하였으나 그 외 음악치료 중재 방법에서는 국내외에서 연구 비중의 차이를 보였다. 노래 활동, 즉흥 음악 활동, 감상 활동, 작곡 활동, 결합 중재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의

연구 비중이 높은 반면, 연주 활동, 혼합 중재 방법, 기타 중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국내의 연구 비중이 높았다. 그 중 감상 활동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은 국외에서는 29.59%였으나 국내에서는 9.28%로 나타나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음악치료 중재 방법에 따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는 국내외에서 연구 비중이 상이하였다.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은 <표 IV-15>와 같다.

<표 IV-15>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

음악치료 중재 방법	국내	국외
노래 활동	4(4.12)	8(8.16)
연주 활동	11(11.34)	6(6.12)
즉흥 음악 활동	3(3.09)	7(7.14)
감상 활동	9(9.28)	29(29.59)
작곡 활동	3(3.09)	5(5.1)
결합 중재 방법	2(2.06)	5(5.1)
혼합 중재 방법	52(53.61)	33(33.67)
기타 중재 방법	13(13.4)	5(5.1)
<i>N</i> (%)	97(100)	98(100)

5.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1) 측정도구의 연도별 동향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의 연도별 동향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 48개의 측정도구가 도출되었고,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33편(67.35%)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측정도구에 따라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고,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는 9편(18.37%)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수행되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2015년에 1편이 수행되었다.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각 3편(6.12%)씩 수행되었는데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2009년에 3편이 수행되었고,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2000년, 2004년, 2009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다.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2012년에 1편(2.08%)이 수행되었다.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연도별 동향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6>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연도별 동향

연도	표준화 도구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	N(%)
1999	1(2.04)	0(0)	0(0)	0(0)	0(0)	1(2.04)
2000	0(0)	0(0)	0(0)	1(2.04)	1(2.04)	2(4.08)
2001	4(8.16)	0(0)	0(0)	0(0)	0(0)	4(8.16)
2002	1(2.04)	0(0)	0(0)	0(0)	1(2.04)	2(4.08)
2003	0(0)	0(0)	0(0)	0(0)	0(0)	0(0)
2004	5(10.2)	0(0)	0(0)	1(2.04)	1(2.04)	7(14.29)
2005	2(4.08)	0(0)	0(0)	0(0)	1(2.04)	3(6.12)
2006	0(0)	0(0)	0(0)	0(0)	0(0)	0(0)
2007	2(4.08)	0(0)	0(0)	0(0)	1(2.04)	3(6.12)
2008	0(0)	0(0)	0(0)	0(0)	0(0)	0(0)
2009	3(6.12)	3(6.12)	0(0)	1(2.04)	1(2.04)	8(16.33)
2010	0(0)	0(0)	0(0)	0(0)	2(4.08)	2(4.08)
2011	2(4.08)	0(0)	0(0)	0(0)	0(0)	2(4.08)
2012	4(8.16)	0(0)	1(2.04)	0(0)	0(0)	5(10.2)
2013	0(0)	0(0)	0(0)	0(0)	0(0)	0(0)
2014	1(2.04)	0(0)	0(0)	0(0)	0(0)	1(2.04)
2015	0(0)	0(0)	0(0)	0(0)	1(2.04)	1(2.04)
2016	2(4.08)	0(0)	0(0)	0(0)	0(0)	2(4.08)
2017	4(8.16)	0(0)	0(0)	0(0)	0(0)	4(8.16)
2018	1(2.04)	0(0)	0(0)	0(0)	0(0)	1(2.04)
2019	0(0)	0(0)	0(0)	0(0)	0(0)	0(0)
2020	1(2.04)	0(0)	0(0)	0(0)	0(0)	1(2.04)
N(%)	33(67.35)	3(6.12)	1(2.04)	3(6.12)	9(18.37)	49(100)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의 연도별 동향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 72개의 측정도구가 도출되었고,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를 활용한 연구는 54편(75%)으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측정도구에 따라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고,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는 16편(22.22%)으로 2000년대 중후반에 주로 수행되었다.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2편(2.78%)으로 2010년, 2011년에 각 1편씩 수행되었고,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와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연도별 동향은 <표 IV-17>과 같다.

<표 IV-17>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연도별 동향

연도	표준화 도구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	N(%)
1999	1(1.39)	0(0)	0(0)	0(0)	0(0)	1(1.39)
2000	1(1.39)	0(0)	0(0)	0(0)	0(0)	1(1.39)
2001	9(12.5)	0(0)	0(0)	0(0)	0(0)	9(12.5)
2002	0(0)	0(0)	0(0)	0(0)	0(0)	0(0)
2003	2(2.78)	0(0)	0(0)	0(0)	0(0)	2(2.78)
2004	4(5.56)	0(0)	0(0)	0(0)	0(0)	4(5.56)
2005	3(4.17)	0(0)	0(0)	0(0)	1(1.39)	4(5.56)
2006	6(8.33)	0(0)	0(0)	0(0)	5(6.94)	11(15.28)
2007	3(4.17)	0(0)	0(0)	0(0)	0(0)	3(4.17)
2008	0(0)	0(0)	0(0)	0(0)	1(1.39)	1(1.39)
2009	1(1.39)	0(0)	0(0)	0(0)	4(5.56)	5(6.94)
2010	1(1.39)	0(0)	0(0)	1(1.39)	0(0)	2(2.78)
2011	3(4.17)	0(0)	0(0)	1(1.39)	1(1.39)	5(6.94)
2012	7(9.72)	0(0)	0(0)	0(0)	0(0)	7(9.72)
2013	0(0)	0(0)	0(0)	0(0)	0(0)	0(0)
2014	2(2.78)	0(0)	0(0)	0(0)	1(1.39)	3(4.17)
2015	2(2.78)	0(0)	0(0)	0(0)	0(0)	2(2.8)
2016	0(0)	0(0)	0(0)	0(0)	0(0)	0(0)
2017	0(0)	0(0)	0(0)	0(0)	0(0)	0(0)
2018	6(8.33)	0(0)	0(0)	0(0)	2(2.78)	8(11.11)
2019	3(4.17)	0(0)	0(0)	0(0)	1(1.39)	4(5.56)
2020	0(0)	0(0)	0(0)	0(0)	0(0)	0(0)
N(%)	54(75)	0(0)	0(0)	2(2.78)	16(22.22)	72(100)

2) 측정도구의 연구 특성

(1)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03편의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 48개의 측정도구가 도출되었고,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 33편(67.35%),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 9편(18.37%),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와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 각 3편(6.12%),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 1편(2.04%)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96편의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 72개의 측정도구가 도출되었고,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 54편(75%),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 16편(22.22%)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 2편(2.78%) 순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에 따른 국내외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총 199편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분석한 결과, 121개의 측정도구가 도출되었다. 국내외에서 모두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 순으로 수행된 점이 유사하였다.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의 비중은 국외에서 75%, 국내에서 67.3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는 국외에서 22.22%, 국내에서 18.37%로 나타나 표준화 도구와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많이 수행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 3편,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 1편이 수행된 반면, 국외에서는 수행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

측정도구	국내	국외
표준화 도구	33(67.35)	54(75)
신뢰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3(6.12)	0(0)
타당도만 확보된 측정도구	1(2.04)	0(0)
연구자 개발 측정도구	3(6.12)	2(2.78)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	9(18.37)	16(22.22)
N(%)	49(100)	72(100)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총 199편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고안한 후 음악치료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분석항목은 연구 유형, 연구 참여자, 중재 목적 영역, 음악치료 중재 방법, 측정도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에서 모두 양적 연구, 그 중에서도 실험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국내외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은주, 1999; 이영화, 2009; Brown & Jellison, 2012; Coddington, 1987; Gfeller, 1995; Gilbert, 1979; Jellison, 197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실험 연구 설계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한 권나미(2016)의 보고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국내에서는 혼합 연구가 양적 연구의 뒤를 이었으나, 국외에서는 질적 연구가 그 뒤를 이어 질적 연구와 혼합 연구의 비중은 국내외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김영신, 고명한, 박지은(2011)이 국내 음악치료 사례 연구 중 혼합 연구가 가장 많았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인 자료 분석으로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 음악치료 연구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는 실험 연구, 질적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로 집중된 연구 분포가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치료 연구가 특정 연구 유형으로 편향되어 수행된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영신, 박지은; 2011; 송혜나, 2018; 조현아, 2013; 채선경, 2020)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근거 기반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 방법론의 활용과 음악이라는 매체의 주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향후 아동 내담자의 특성과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민감한 연구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 참여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국외에서는 혼합 연령 대상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영아, 유아, 혼합 연령, 기타 연령으로 대상이 확장되었다. 국외에서는 혼합 연령 대상 연구가 꾸준히 높은 비중으로 수행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령후기 대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아 대상 연구가 매년 수행되어 국내외의 연구 발표 시기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비중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장애 대상 연구가 2003년을 외에는 매년 수행되었으나 2001년부터 수행된 비장애 대상의 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외에서는 2003년까지 비장애 대상 연구의 비중이 높다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 대상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2016년 이후 다시 비장애 대상 연구가 높은 연구 비중을 보였다. 국내외에서 연구 비중이 상이하였다. 의학적 진단 대상 연구와 혼합 대상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비장애 아동 대상

연구는 50.49%로 절반 이상의 연구 비중을 보여 30.21%인 국외 연구 비중보다 높았으며, 이는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경숙, 이상은, 2016; 송혜나, 2018; 조현아, 2013; 황은영, 박소연, 2012)의 결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비장애 대상 연구에서 국내에서는 학습 부진, 시험 불안, 학교 부적응 문제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 대상 연구 4편이 수행되었으나 국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국외에서는 국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별 경험 아동 대상 연구 6편이 수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높은 학구열과 치열한 입시 경쟁이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아동, 특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입시 경쟁, 학업 성적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강지현, 정연주, 2020; 오정희, 선혜연, 2013; 이은영, 박양리, 현명호, 2008; 정석환, 배정혜, 2017),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학업, 입시에 대한 부담에 따른 심리적 고충을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강노아, 2009; 박혜인, 김영신, 2018; 임지혜, 2009; 정현주, 2004).

장애 대상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신경발달장애 중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대상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연구 비중을 보였고, 이는 국내외 음악치료 학술지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조현아, 2013; 이영화, 200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의학적 진단 대상 연구가 국내외에서 모두 가장 적게 수행된 점은 유사하였으나 국외의 연구 비중은 16.67%로 2.91%인 국내 연구보다 5배 이상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미숙아 대상 연구(Cassidy, 2009, Cevasco & Grant, 2005; Haslbeck, 2014; Ullsten et al., 2017)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9편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사별 경험 아동 대상 연구 역시 의학적 진단 대상이 아님에도 소아병원, 호스피스와 같은 의료 기관 주관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Myers-Coffman et al., 2019; Roberts & McFerran), 이를 통해 국외의 아동 음악치료 연구는 국내보다 다

양한 연구 참여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다인(2017)은 의료 환경 내 음악치료 연구의 관심이 국내외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을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의료 환경 내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국내외 아동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연령, 임상적 특성에 따라 연구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음악치료 분석 연구(김경숙, 이상은, 2016; 윤은정, 박혜영, 2019; 이성경, 김지혜, 2018; 황은영, 2020)에서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연구 참여자, 다양한 연구 주제와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시아, 유럽, 서구의 문화권에서 중시되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음악치료의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상이하며, 이것이 연구에 온전히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에서 모두 정서 영역이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인지, 언어, 사회 영역의 연구가 수행되다가 2002년부터 정서 영역의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외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서 영역이 높은 연구 비중을 보였고, 사회 영역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은 국내외에서 모두 정서, 사회 영역 순으로 높은 연구 비중을 나타냈고, 기타 영역을 다룬 연구의 비중이 가장 적은 점이 유사하였으나, 그 외 중재 목적 영역은 국내외 연구 수행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이 인간의 정서를 탐색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발달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밝힌 Bruscia(1998)의 주장을 지지한다.

아동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목적 영역 중 정서 영역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이 국내외 모두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는 사회 영역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을 보고한 Brown과 Jellison(2012)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고,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다룬 연구(김경숙, 이상은, 2016; 조현아, 2013)의 보고와는 유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분석 범위를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로 제한한 국내의 연구와는 달리 국외의 연구에서는 분석 범위를 음악 교육까지 확장하였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으며, 분석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음악치료 중재 방법을 분석한 결과, 국내 외에서 모두 혼합 중재 방법이 전반적으로 수행되었고 연구 비중 또한 높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기타 중재 방법과 감상 활동의 연구 비중이 높았고, 2007년 이후에는 연주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혼합 중재 방법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국외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감상 활동의 연구 비중이 높았고, 2018년 이후 노래 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혼합 중재 방법은 국내외에서 모두 연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권나미, 2016; 윤은정, 박혜영, 2019; 안은경, 2012; 이미경, 2006)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이자 임상가로서 음악치료사들은 아동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을 통한 치료적 변화를 유발하는 최선의 방식을 고려하고 반영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연구 비중을 보였고, 의료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로 수행되었고, 국외에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수행되었다. 국내외에서 모두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동향을 분석한 안은경(2012)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이 각국의 실정과 연구 목적에 맞게 표준화 도구를 선정하는 것은 근거기반 음악치료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여 음악치료의 치료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

로 판단된다. 의료 기기 및 측정 장치를 활용한 연구 편수의 비중이 높은 이유도 각종 기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치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음악치료의 정량적 효과를 입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적 연구의 수행 비중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는 시대적 요구와 현상에 따른 연구의 필요를 반영하여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이루었으며, 각국의 사회 문화적 관점과 가치관이 반영된 연구 주제와 방법을 채택하여 다양한 치료적 변화를 입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국내외 실정에 따라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범위, 주제, 연구 방법이 확장되고 세분화됨을 밝힘으로써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의 임상 실제와 학술 연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왔음에 주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및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고안한 분석틀에 따라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분석 대상 연구 원문에서 연구자가 밝히지 않은 내용을 기타 또는 미기재로 범주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세부 내용에 대한 기술은 음악치료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임상적 근거 제공에 필수적이기에 연구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구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및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범위를 아동 대상으로만 제한하였으나 아동과 특수교사, 음악치료사, 가족 등이 함께 한 연구로 확장한다면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분석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해질 것을 우려하여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용색인에 등재되어 학문적 위상을 인정받은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4종을 선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학술지의 선정을 통해 분석 범위를 확장한다면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선 (2007). 자폐아동의 음악적 선호도와 문제 행동의 연관성.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1), 47-60.
- 강노아 (2009). 음악심리치료가 학습부진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2), 1-23.
- 강지현, 정연주 (2020). 학업중단과 비행: 학업중단 전후 비행변화의 유형 구분 및 특성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4(2), 163-204
- 강현정 (2006).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집중력 향상과 충동성 조절을 위한 바이올린 교습 중심의 음악치료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2), 1-14.
- 고명한 (2010). 현상학적 음악치료 연구 분석 - 1987-2008 : 저널과 박사학위 논문,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1), 1-15.
- 고범석, 배미현 (2018).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조절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 신경화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1), 1-29.
- 고은진 (2017). **국내 청소년 대상 정서행동관련 변인 중심 음악중재 연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수영, 배미현 (2020). 음악이 유도하는 정서의 신경 영상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2(1), 73-99.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 국제아동인권센터 (2022).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incrc.org/uncrc/>.
- 권나미 (2016).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음악치료 연구동향: 한국과 미국의 학술지 비교분석(1999-2015)**.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경숙, 이상은 (2016).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연구 동향 : 성과와 과제. **한국 음악치료학회지**, 18(2), 21-56.
- 김미숙 (2000). 완전통합교육환경에서 놀이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기술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5(1), 29-52.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선희 (2001). 음악활동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감각발달 및 사회·정서 영역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3(2), 1-19.
- 김수희 (2002). 음악요법/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4(2), 19-40.
- 김수희 (2009).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가창 프로그램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33-53.
- 김영신, 고명한, 박지은 (2011). 국내 음악치료 사례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3), 13-38.
- 김영신, 박지은 (2011). 국내 음악치료 질적 연구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2), 1-30.
- 김유리, 노진아 (2011). 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일대상연구 문헌의 연구 방법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357-383.
- 김은주 (1999). "Journal of Music Therapy"(1987-1998)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 분석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 13-61.
- 김지원 (2018).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지지적 노래만들기.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41-67.
- 김하영 (2018). 등재학술지 내 음악치료 연구 게재 동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1-22.
- 김효진, 정현주 (2017). 음정 모방 중심 노래부르기를 통한 인공와우이식아동

- 의 음고 산출 정확도 향상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4(1), 1-16.
- 남은정 (2000). **Music Therapy Perspective(1982-1998)에 수록된 연구물의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서안나 (2020).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음악 증재 문헌 내 평가방법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문수정 (2021). **아동 대상 국내 음악치료전공 학위논문 에 나타난 진단평가 도구의 활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문지영 (2000) 음악적 자극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 1-17.
- 문현호 (2011).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내용분석(1995-2010)**.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소연 (2004) 동요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2), 38-51.
- 박소연, 황은영 (2006). 음악치료 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치료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8(1), 37-53.
- 박지은 (2009). 장애 아동의 그룹 음악치료의 지속적인 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2), 66-85.
- 박현경, 이주영 (2014)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6(1), 29-47.
- 박혜인, 김영신 (2018). 지시적 음악심상 활동이 청소년 태권도 선수의 경쟁불안 관리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2), 79-99.
- 송미화 (2013). **특수아동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경향 분석(1999-2012)**.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송혜나 (2018). **국내 음악치료전공 학위논문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성인영 (1999). 음악활동이 정인지체아동의 부적응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 63-78.
- 성태제, 시기자 (2020). **연구방법론 3판**. 서울: 학지사.
- 안성희 (2014).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중재를 적용한 국내 단일대상연구의 체계적 고찰: 2000-2013년 연구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은경 (2012).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현장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 분석 : 국외 문헌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오소영, 정현주 (2016). 초등학생의 리듬 재산출 능력과 인지기능 수준 간 상관관계.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3(1), 1-18.
- 오정희, 선혜연. (201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성별 및 학교급,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3), 1981-1994.
- 오혜정 (2010). 음악과 미술의 통합적 활동중심중재를 통한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자발화 향상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4), 73-93.
- 여정윤 (2010).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개별 음악치료 사례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1), 16-40.
- 여정윤 (2012). 음악치료활동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21-40.
- 유가을, 윤예은 (2019).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대상 리드믹 운동과제 평가 연구 메타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1), 47-72.
- 윤선영, 강경선 (2016).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Pilot Study.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19-138.

- 윤은정, 박혜영 (2019). 음악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2), 79-108.
- 윤주리 (2014). 조건부 기소유에 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음악치료 경험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1(1), 63-82.
- 이미경 (2006). 국내 일반 및 장애 아동 관련 음악치료 학위논문 유형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2), 15-28.
- 이미정 (2020). **국내·외 자폐범주성장애 영·유아 대상 음악치료 중재 연구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민지, 양은아 (2020).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음악활동이 시설보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립생활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2(1), 101-124.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상은, 김경숙 (2015).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7(1), 63-91.
- 이성경, 김지혜 (2018). 국내 여성 대상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음악중재 연구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1), 69-94.
- 이승은 (2019). 국내 지적장애 아동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1), 1-24.
- 이시자 (2010). 유아놀이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0(5), 263-289.
- 이영화 (2009). Journal of Music Therapy(1999-2008) 논문의 내용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2), 36-65.

- 이은영, 박양리, 현명호 (2008). 시험불안에 있어 학업스트레스와 마음챙김의 관련성. **스트레스연구**, 16(2), 79-84.
- 이지민 (2020). 노래기반 지지적 음악심리치료를 통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 유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1), 25-50.
- 이지영 (2005).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사례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7(1), 90-114.
- 이지혜 (2018). **아동 대상 음악치료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임지혜 (2009).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청소년의 시험불안 감소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81-109.
- 임진석 (2007).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의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9(1), 1-22.
- 장연희, 박은경 (2018).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집단 음악치료 효과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2), 29-51.
- 장영민 (2003).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선호하는 음악 조성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5(1), 53-70.
- 장혜원 (2002). 음악활동이 통합된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4(1), 15-33.
- 장혜원 (2008). 통합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유아가 경험하는 음악활동의 의미.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0(2), 83-102.
- 장혜원 (2013). 음악활동이 어린이집에 통합된 발달지체유아의 운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20(2), 287-308.
- 전지혜 (2018). **국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 대상 음악치료 문헌분석 : 정책과 제도의 변화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별 (2017). **국내외 신경학적 질환 대상 음악치료 연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정석환, 배정혜 (2017). 한국 입시교육의 사회사적 의미 고찰. **동아인문학**, 41(1), 449-476.
- 정영주 (2001). **한국 음악치료의 역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옥분 (2010).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19).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3판)**. 서울: 학지사.
- 정은이 (2001). 한국음악치료의 역사-1960년대부터 1996년까지-. **한국음악치료학회지**, 3(2), 21-39.
- 정현정 (2009).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심리치료 적용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1-31.
- 정현주 (2004). 학습부진아의 청각정보처리와 단기기억력 향상을 위한 음악의 치료적, 교육적 접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1), 1-10.
- 조아람, 김영신 (2015).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7(2), 57-79.
- 조연진 (2013). 신경 언어 장애의 언어재활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95-119.
- 조연진, 고범석 (2018). 치매 환자의 인지재활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9(1), 117-149.
- 조현경 (2009).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연구 분석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현아 (2013).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현황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0(2), 55-77.
- 채선경 (2020). **시설보호아동 관련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 (1999-2020년) - 중재 특성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최다인 (2017). 국내외 의료 환경 내 가족 참여 음악 중재 연구 고찰. **인간행**

동과 음악연구, 14(1), 7-39.

최명애, 정재심, 임경춘, 김주현, 김금순, 권정순, 김성재, 김경희, 이경은, 김을순, 이경숙, 곽찬영, 박광옥 (2010). '임상간호연구' 학술지 게재논문 (1995-2008년)의 연구동향 분석. **임상간호연구**, 16(2), 95-105.

최병철 (2017).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과 한국음악치료학회 20년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9(1), 1-27.

최병철, 황은영 (2011). 록큰롤 음악 청취와 청소년의 내재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3), 1-12.

최세민, 이윤옥 (2007). 음악놀이가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친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1(4), 427-442.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한국음악치료학회 (2022a). **정관**. <http://www.musictherapy.or.kr/html/sub0103.html>.

한국음악치료학회 (2022b). **학회논문투고 안내**. <http://www.musictherapy.or.kr/html/sub0303.html>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2022a). **학회지 안내 및 논문모집**. <http://komtea.or.kr/r/sub/subMain.jsp?menuseq=5020>.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2022b). **학회정관**. <http://komtea.or.kr/sub/subMain.jsp?menuseq=1030>.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2022c). **학회소개**. <http://www.komtea.or.kr/sub/subMain.jsp?menuseq=10>.

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22a).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음악치료, 음악연구, 인간행동)**.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SER000001994&from=sereDetail>.

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22b). **한국음악치료학회지(KJMT)**.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SER000001994&from=sereDetail>.

- 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002207&from=sereDetail.
- 현경실 (2018). 음악교육의 심리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7(1), 147-168.
- 황은영 (2002). 신체표현을 사용한 음악감상이 만 5세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4(1), 1-13.
- 황은영 (2012). 청소년 대상 그룹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9(2), 1-17.
- 황은영 (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음악치료학회지’의 토픽 모델링 및 트렌드 분석(1999-2019).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2(2), 29-47.
- 황은영, 박소연 (2012). 국내 음악치료 관련 학위논문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1-19.
- 황혜경 (2005). 개인적 지능 향상을 위한 유아 다중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중지능교육연구*, 2(1), 97-117.
- Abrams, B. (2010). Evidence-Based Music Therapy Practice: An Integral Understanding. *Journal of Music Therapy*, 47(4), 351-379.
- Aigen, K. (1993). The Music Therapist as Qualitative Researcher. *Music Therapy*, 12(1), 16-39.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22a). *About Music Therapy & AMTA*. Retrieved from <http://www.musictherapy.org/about/>.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22b). *History of Music Therapy*. Retrieved from <https://www.musictherapy.org/about/history/>.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22c). *AMTA strategic priority on research*. Retrieved from http://www.musictherapy.org/research/strategic_priority_on_research/overview/.
-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22d). *Music Therapy Journals and*

- Public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musictherapy.org/research/pubs/>
-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022a). *Aims and scope*. Retrieved from <https://www.tandfonline.com/action/journalInformation?show=aimsScope&journalCode=rnjm20>.
-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022b). *Journal 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www.tandfonline.com/action/journalInformation?journalCode=rnjm20>.
- Berk, L. E. (2015). **아동발달(9판)**(이종숙,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12).
- Boswell, B., & Vidret, M. (1993). Rhythmic movement and music for adolescents with severe and profound disabilities. *Music Therapy Perspectives, 11*(1), 37-41.
- Brooks, D. (2003). A History of Music Therapy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the English Language. *Journal of Music Therapy, 40*(2), 151-168.
- Brown, L. S., & Jellison, J. A. (2012). Music research with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and typically developing peer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usic Therapy, 49*(3), 335-364.
- Bruscia, K. E. (1998). Standards of Integrity for Qualitative Music Therapy Research. *Journal of Music Therapy, 35*(3), 176-200.
- Bruscia, K. E. (2003). *Defining Music Therapy*. Spring City, PA: Spring House Books.
- Cassidy, J. W. (2009). The Effect of Decibel Level of Music Stimuli and Gender on Head Circumferenc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Premature Infants in the NICU, *Journal of Music Therapy, 46*(3),

180-190.

- Cevasco, A. M., & Grant, R. E. (2005). Effects of the Pacifier Activated Lullaby on Weight Gain of Premature Infants. *Journal of Music Therapy*, 42(2), 123-39.
- Codding, P. A. (1987).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1977 - 85. *Journal of Music Therapy*, 24(4), 195-202.
- Clark, I., & Harding, K. (2012). Psychosocial outcomes of active singing interventions for therapeutic purpos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1(1), 80-98.
- Clark, I. N., Baker, F. A., & Taylor, N. F. (2016). The modulating effects of music listening on health-related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narrative synthesi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5(1), 76-104.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3판)**(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13).
- Creswell, J. W. (2017).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avis, W. B. (1987). Music therapy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 *Journal of Music Therapy*, 24(2), 76 - 87.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8).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3rd ed.)*. Silver Spring;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 Darrow, A. A. (2006). **음악치료 접근법**(김영신 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4).

- Else, B., & Wheeler, B. (2010). Music therapy practice: relative perspectives in evidence-based review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9*(1), 29-50.
- Fiore, J. (2016). Analysis of Lyrics from Group Songwriting with 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53*(3), 207-231.
- Gaston, E. T. (1968). *Music in therapy*. New York: MacMillan.
- Fairchild, R. & McFerran, K. S. (2019). "Music is everything": Using collaborative group songwriting as an arts-based method with children experiencing homelessness and family violence.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8*(2), 88-107.
- Geist, K. (2014). Single Case Design Studies in Music Therapy: Resurrecting Experimental. *Journal of Music Therapy, 51*(4), 293-309.
- Gfeller, K. E. (1987).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as reflected in research literature. *Journal of Music Therapy, 24*(4), 178-194.
- Gfeller, K. E. (1999). *Music Therapy in the school*.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Eds.),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St. Louis, MO: McGraw-Hill College.
- Gilbert, J. P. (1979). Published research in music therapy, 1973 - 1978: Content, focu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usic Therapy, 16*(3), 102-110.
- Gilbertson, S. K., & Aldridge, D. (2003). Searching PubMed/MEDLINE, Ingenta, and the Music Therapy World Journal Index for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40*(4), 324-344.

- Gregory, D. (2002). Four Decades of Music Therapy Behavioral Research Designs: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of Music Therapy Articles. *Journal of Music Therapy, 39*(1), 2002, 56-71.
- Haslbeck, F. B. (2012). Music therapy for premature infants and their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1*(3), 203-226.
- Haslbeck, F. B. (2014). Creative music therapy with premature infants: An analysis of video footage.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3*(1), 5-35.
- Haire, N., & MacDonald, R. (2019). Humour in music therapy: A narrative literature review.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8*(4), 273-290.
- Hallam, S. (2010). The power of music: Its impact on the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8*(3), 269-289.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d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unter, B. C. & Oliva, R. & Sahler, O. J. & Gaisser, D. & Salipante, D. M. & Arezina, C. H. (2010). Music therapy as an adjunctive treatment in the management of stress for patients being weaned from mechanical ventila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47*(3), 198-219.
- ICD-11 (2022). *ICD-11 Coding Tool*. Retrieved from <https://icd.who.int/ct11>

/icd11_mms/en/release.

- James, M. R. (1985). Source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the first twenty years, 1964-1983. *Journal of Music Therapy*, 22(2), 87-94.
- Jellison, J. A. (1973). The frequency and general mode of inquiry of research in music therapy, 1952-1972.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 1-8.
- Jerling, P., & Heyns, M. (2020). Exploring Guided Imagery and Music as a well-being interven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9(4), 371-390.
- Jones, J. D. (2006). The Use of Control Groups in Music Therapy Research: A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in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43(4), 334-355
- Johnson, R. B., Onwuegbuzie, A. J., & Turner, L. A. (2007). Toward a definition of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1(2), 112-133.
- Keith, D. R. (2009). The Effects of Music Listening on Inconsolable Crying in Premature Infants. *Journal of Music Therapy*, 26(3), 191-203.
- Kern, P. (2010). Evidence-based practice in early childhood music therapy: A decision-making process. *Music Therapy Perspectives*, 28(2), 116-123.
- Kern, P., & Wolery, M. (2001). Participation of a Preschooler with Visual Impairments on the Playground: Effects of Musical Adaptations and Staff Development. *Journal of Music Therapy*, 38(2), 149-164.
- Koh, E T., & Owen, W. O. (2000). *Introduction to Nutrition and Health*

Research. MA: Springer.

- Koger, S. M., Chapin, K., & Brotons, M. (1999). Is Music Therapy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Dementia? A Meta-Analytic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Music Therapy, 36*(1), 2-15.
- Korenjak, A. (2018). From moral treatment to modern music therapy: On the history of music therapy in Vienna (c. 1820-1960).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7*(5), 341-359.
- Lee, J. H. (2016). The Effects of Music on Pain: A Meta-Analysis. *Journal of Music Therapy, 53*(4), 430-477.
- Lim, H. A. (2010). Effect of "Developmental Speech and Language Training Through Music" on Speech Produc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47*(1), 2-26.
- Lim, H. A. & Draper, E. (2011).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Incorporated with Applied Behavior Analysis Verbal Behavior Approach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48*(4), 532-550.
- Maxwell, J. A. (2016). Expanding the History and Range of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10*(1), 12-27.
- McKinney, C. H. (2017). Health Outcomes of a Series of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Session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usic Therapy, 54*(1), 1-34.
- Miller, C. (2017). Practice-Based Evidence: Therapist as Researcher, Using Outcome Measures. *Dramatherapy, 38*(1), 4-15.
- Myers-Coffman, K., Baker, F. A., Daly, B. P., Palisano, R., & Bradt, J.

- (2019). The Resilience Songwriting Program for Adolescent Bereavement: A Mixed Methods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56(4), 348-380.
- Nielsen, J. B. & Holck, U. (2020). Synchronicity in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 Developing an intersubjective field with a chil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9(2), 112-131.
- O'Callaghan, C. (2012). Grounded Theory in Music Therapy Research. *Journal of Music Therapy*, 49(3), 236-277.
- O'Kelly, J. & Bodak, R. (2016). Development of the Music Therapy Assessment Tool for Advanced Huntington's Disease: A Pilot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53(3), 232-56.
- Nordoff, P. & Robbins, C. (2011). 특수교육에서의 음악치료(3판)(박소연 역), 파주: 교육과학사(원서출판, 2006).
- Pelletier, C. L. (2004). The effect of music on decreasing arousal due to str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Music Therapy*, 41(3), 192-214.
- Rickson, D. J. (2006). Instructional and Improvisational Models of Music Therapy with Adolescents Who Hav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n Motor Impulsivity. *Journal of Music Therapy*, 43(1), 39-62.
- Rice, F. P. & Dolgin, K. G. (2009). 청소년 심리학(제12판)(정영숙 · 신민섭 · 이승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08).
- Robb, S. L. (2003). Music interventions and group participation skills of preschoolers with visual impairments: raising questions about music, arousal, and atten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40(4), 266-82.

- Roberts, M., & McFerran, K. (2013). A mixed methods analysis of songs written by bereaved preadolescents in individual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50*(1), 25-52.
- Salomon-Gimmon, M. & Elefant, C. (2019). Development of vocal communica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uring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8*(3), 174-192.
- Silverman, M. J. (2003). The Influence of Music on the Symptoms of Psychosis: A Meta-Analysis. *Journal of Music Therapy, 40*(1), 27-40.
- Strehlow, G. (2009). The use of music therapy in treating sexually abused children.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8*(2), 167-183.
- Reschke-Hernandez, A. E. (2011). History of Music Therapy Treatment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Music Therapy, 48*(2), 2011, 169-207.
- Standley, J. M. (1986). Music research in medical/dental treatment: meta-analysi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Music Therapy, 23*(2), 56-122.
- Solli, H. P., Rolvsjord, R., & Borg, M. (2013). Toward Understanding Music Therapy as a Recovery-Oriented Practice within Mental Health Care: A Meta-Synthesis of Service Users' Experiences. *Journal of Music Therapy, 50*(4), 244-273.
- Taylor and Francis Online (2022a). *Aims and scope*. Retrieved from <https://www.tandfonline.com/action/journalInformation?show=aimsScope&journalCode=rnjm20>.

- Taylor and Francis Online (2022b). *Journal 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www.tandfonline.com/action/journalInformation?journalCode=rnjm20>.
- Tan, L. P. (2004). The Effects of Background Music on Quality of Sleep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Music Therapy*, 41(2), 128-150.
- Ullsten, A., Eriksson, M., Klässbo, M., & Volgsten, U.(2017). Live music therapy with lullaby singing as affective support during painful procedures: A case study with microanalysi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6(2), 142-166.
- Web of Science Master Journal List (2022). *Search Journals*. Retrieved from <https://mjl.clarivate.com>.
- Wimmer, R. D. & Dominick J. R. (2013). *Mass Media Reseach: An Introduction, 8th ed.* MA: Wadsworth.
- Williams, C. (2007). Research Methods. *Journal of Business&Economics Research*, 5(3), 66-72.
- Wheeler, B. L. (1983). Prologue. *Music Therapy*, 3(1), 1-3.
- Wheeler, B, L. (2016). **음악치료 핸드북**(전국음악치료사협회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15).
- Wheeler, B., & Kenny, C. (2005). Principles of qualitative research. In B. Wheeler(Ed.), *Music therapy research*(2nd ed.).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Whipple, J. (2004). Music in interven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A meta-analysis. *Journal of Music Therapy*, 41(2), 90-106.
- Whipple, C. M., Gfeller, K., Driscoll, V., Oleson, J., & McGregor, K. (2015).

Do Communication Disorders Extend to Musical Messages? An Answer from Children with Hearing Loss or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52(1), 78 - 116.

Yoo, G. E. (2016). Rhythmic Auditory Cueing in Motor Rehabilitation for Stroke Patien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Music Therapy*, 53(2), 149-177.

ABSTRACT

An analysis of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 Focusing on the Journal of Music Therapy(1999–2020)

Choi, Goya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verall trends in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published in Korea and international music therapy journal, and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foreign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99 music therapy studies for children published in 4 types of music therapy journals from 1999 to 2020 were selected. Th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items such as study types, participants, the purpose of interventions, music therapy interventions, test instru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research types of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experimental research had the highest proportion. In Korea, the research type gradually expanded from quantitative research to qualitative research and mixed research, in foreign countries,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search was second to that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more diversely than in Korea, such as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grounded theory research.

Second, as for the participants of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the propor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ag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Korea, the proportion of studies with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ose without disabilities was high, and overseas, studies were conducted with various participants at all times.

Third, as for the purpose of interventions of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the proportion of researches using the emotional and social domains was high both at Korea and abroad, and the proportion of research using the music field was conducted at a higher proportion in Korea. Overseas, there was less difference in research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compared to Korea.

Fourth, as for the music therapy interventions of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the proportions of research using the mixed music therapy interventions were generally conducted both at Korea and abroad. In Korea, music therapy interventions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from studies using performance, appreciation, and singing activities to studies using improvised music activities and composing activities. As the proportion of studies using listening activity was high abroad, studies using more diverse music therapy interventions were conducted in Korea.

Fifth, as for the test measurements for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the proportion of research using standardization tools, medical devices and measurement devices was high both at home and abroad, and

as time passed, more studies using test measurements such as medical devices, measuring devices, and researcher-developed measuring tools were conducted abroad tha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verall trends in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published in Korea and international music therapy journals, and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foreign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Through this study, research on music therapy for children at home and abroad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maturity at the same time by reflecting the needs of research according to the needs and phenomena of the times,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therapeutic changes were demonstrated by adopting research topics and methods reflecting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s and values of each country. Also,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scope, subject, and research method of music therapy research for children is expanded and subdivid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so that music therapy for children affects clinical practice and academic research. It was noted that they had developed together.

<부 록 1> 분석 대상 국내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1)

연번	연도	저자	제목	학술지
1	1999	성인영	음악활동이 정인지체아동의 부적응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KJMT
2	2000	문지영	음악적 자극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반응에 미치는 효과	KJMT
3	2000	최희선	음악적 중재전략이 정인지체학생의 쌍언합 단어학습의 보유력에 미치는 효과	KJMT
4	2001	진소영	음악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우울성향 감소에 미치는 효과	KJMT
5	2001	김향숙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 중고생을 중심으로 -	KJMT
6	2001	김선희	음악활동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감각발달 및 사회·정서 영역에 미치는 효과	KJMT
7	2002	황은영	신체표현을 사용한 음악감상이 만 5세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KJMT
8	2002	장혜원	음악활동이 통합된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KJMT
9	2003	장영민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선호하는 음악 조성간의 관련성 연구	KJMT
10	2004	김은영	음악이 기분 반응과 기분 일치성 기억회상에 미치는 영향	KJMT
11	2004	이선민	노래 부르기와 감상 시 아동이 선호하는 템포와 조성에 대한 연구	KJMT
12	2004	정진희	입원아동의 주사불안 감소를 위한 음악감상의 효과 연구	KJMT
13	2004	박소연	동요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KJMT
14	2004	정현주	학습부진아의 청각정보처리와 단기기억력 향상을 위한 음악의 치료적,교육적 접근	KMHB
15	2004	노주희	오디에이션 음악활동이 유치원 아동의 음악소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KMHB
16	2004	강성미	정인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활동 사례 분석	KMHB
17	2004	임명희	구조화된 음악활동을 통한 학습장애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관한 연구	KMHB
18	2004	백혜선	A Case Study of Music Therapy with Autistic Child	KMHB
19	2005	김지연	음악활동이 유아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KJMT
20	2005	김미향	청소년의 감각추구 동기와 대중음악 선호와의 관련성 조사	KJMT
21	2005	유지형	영아의 발달 과정에 따른 청각적 자극에 대한 음색 구별 반응 연구	KJMT
22	2005	이지영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사례연구	KJMT
23	2005	김영신	창조적 음악치료 사례연구: Melissa	KJMT
24	2005	이 숙	정인지체 아동과 일반 아동의 운율 특성 비교	KJMT
25	2005	서승미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KMHB

연번	연도	저자	제목	학술지
26	2005	전미혜	말기질환 아동을 위한 환경적 지지모델 (The Contextual Support Model of Music Therapy)에 근거한 음악치료사례연구	KMHB
27	2005	한지현	공격성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타악기 연주활동 중심의 사례연구-	KMHB
28	2005	노주희	음악활동으로서의 일상생활놀이- 교육목표 및 방법	KMHB
29	2006	양은아	중증 장애 아동의 의미 있는 음악치료 경험	KJMT
30	2006	한성은	사회적 상황 중심의 노래활동을 통한 자폐아동의 언어표현 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KMHB
31	2006	이수연	3-6세 유아의 영역별 발달 촉진을 위한 단계별 음악치료교육 활동 연구	KMHB
32	2006	강현정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집중력 향상과 충동성 조절을 위한 바이올린 교습 중심의 음악치료 사례 연구	KMHB
33	2006	이미경	국내 일반 및 장애 아동 관련 음악치료 학위논문 유형분석	KMHB
34	2007	김지연	분노표출을 위한 동일시의 변화	KJMT
35	2007	허혜정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음악 활동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세타파 변화에 미치는 효과	KJMT
36	2007	김민경	자일로폰 악기연주 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KJMT
37	2007	조정민	말더듬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KMHB
38	2007	구새롭	우울성향 여중생의 블루스 음악형식을 활용한 자기효능감 증진 연주 활동	KMHB
39	2007	남옥선	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KMHB
40	2007	윤은미, 노주희	'오디' 음악활동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에 관한 사례 연구	KMHB
41	2007	이윤진	경직형 뇌성마비 유아의 초보운동단계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활동 프로그램 개발	KMHB
42	2008	김경숙	진반적 발달 장애아를 위한 음악치료 진단평가 도구의 개발 연구	KJMT
43	2008	양은아	자폐아 음악치료에서 나타난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 분석	KJMT
44	2008	김영신	예술고교 음악과 학생들의 연주불안 조사 연구	KJMT
45	2008	장혜원	통합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유아가 경험하는 음악활동의 의미	KJMT
46	2008	곽희정, 김동민	15q 염색체중복 증후군 아동과의 놀도프-로빈스 음악치료 임상사례	KMHB
47	2008	이주영	방임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 감소를 위한 분노조절 음악 프로그램 연구	KMHB

연번	연도	저자	제목	학술지
48	2008	황지혜	Songwriting as Therapy with Pediatric Patients Undergoing Cancer Treatment	KMHB
49	2009	김선하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KJMT
50	2009	진소영	음악 속의 너와 나, 그리고 우리:장애아동 집단의 음악치료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KJMT
51	2009	이경숙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음악 만들기 경험'의 의미 분석	KJMT
52	2009	양은아, 최병철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폐 유아의 상호작용 촉진에 미치는 효과	KJMT
53	2009	황은영, 김영신	놀이적 음악감상이 유아들의 고전음악 선호, 주제 선율 인식 및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KJMT
54	2009	정현정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심리치료 적용 연구	KMHB
55	2009	김수희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가장 프로그램 연구	KMHB
56	2009	권세미	유아의 자기표현능력 증진을 위한 오르프 음악활동의 적용	KMHB
57	2009	임지혜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청소년의 시험불안 감소에 관한 연구	KMHB
58	2009	강노아	음악심리치료가 학습부진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KMHB
59	2009	이아련	그룹리듬연주활동에 따른 발달지체유아의 모방능력에 관한 사례연구	KMHB
60	2009	전희란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과잉-분리가정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에 관한 연구	KMHB
61	2010	여정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개별 음악치료 사례연구	KJMT
62	2010	곽은미	지적장애영유아의 수학개념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KMHB
63	2010	허혜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KMHB
64	2010	김수지 외	리듬청각자극(RAS)을 사용한 소뇌 별아교세포종(CA) 환자의 보행 훈련 사례 연구	KMHB
65	2011	최병철, 황은영	록큰롤 음악 청취와 청소년의 내재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KJMT
66	2011	한송이	치료적 악기 연주 적용이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우세손기능에 미치는 효과	KMHB
67	2011	황선영	학령기 인공와우 이식 아동과 일반 건청 아동의 음악 선호도에 대한 비교 연구	KMHB
68	2012	여정윤	음악치료활동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KJMT
69	2012	박지은, 최병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KJMT

연번	연도	저자	제목	학술지
70	2012	황은영	청소년 대상 그룹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KMHB
71	2012	김진아	Salient musical elements and children's choice of objects in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for children with autism	KMHB
72	2013	장혜원	음악활동에서 관찰될 수 있는 유아의 언어의사소통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KJMT
73	2013	명 온	사건구성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말하기에 미치는 효과	KJMT
74	2013	김영은, 이은희	학생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KJMT
75	2014	장혜원	음악활동에서 관찰될 수 있는 유아의 언어의사소통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KJMT
76	2014	유가을	Differential Response to Joint Atten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epending on the Level of Attentional Cues	KMHB
77	2014	강혜숙	청소년의 문제 행동 특성에 따른 타악기 즉흥연주 패턴 연구	KMHB
78	2015	장혜원, 최병철	음악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KJMT
79	2015	지경미	지적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향상을 위한 태블릿 PC 기반 음악 만들기 활동	KMHB
80	2015	김혜경	연령과 음악적 배경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화음 선호도	KMHB
81	2015	이진형	Integral Thinking in Music Therapy	KMHB
82	2015	박혜지	외상성 뇌손상 청소년 대상 리듬청각자극(RAS) 보행 훈련 시 선율 적용 사례	KMHB
83	2016	장혜원, 최병철	음악활동에서 관찰되는 유아 사회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타당화 연구	KJMT
84	2016	윤선영, 강경선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Pilot Study	KJMT
85	2016	오소영, 정현주	초등학생의 리듬 재산출 능력과 인지기능 수준 간 상관관계	KMHB
86	2016	유가을	Analysis of Social Communication Measurement in the Music Therapy Intervention Literature for Children	KMHB
87	2017	김효진, 정현주	음경 모방 중심 노래부르기를 통한 인공와우이식아동의 음고 산출 정확도 향상 사례	KMHB
88	2017	서은실	The Use of Group Drumming With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KMHB

연번	연도	저자	제목	학술지
89	2017	정필은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공동주의 기술 향상을 위한 단계적 상호주의 중재효과	KMHB
90	2017	김희진, 문소영	노래중심 집단음악치료가 유소년 축구선수의 운동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원에 미치는 영향	KMHB
91	2018	장연희, 박은경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집단 음악치료 효과 메타분석	KJMT
92	2018	박혜인, 김영신	지시적 음악심상 활동이 청소년 태권도 선수의 경쟁불안 관리에 미치는 효과	KJMT
93	2018	김지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지지적 노래만들기	KMHB
94	2018	윤예은	노래만들기 중재를 통한 인공와우이식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 사례	KMHB
95	2019	이승은	국내 지적장애 아동 ·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 분석	KMHB
96	2019	유가을, 윤예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대상 리드믹 운동과제 평가 연구 메타분석	KMHB
97	2019	윤주리, 정현주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자원 형성	KMHB
98	2019	최지은	소아암 완치 청소년의 자기표현 경험을 위한 랩 만들기 사례	KMHB
99	2020	권용주, 강경선	청소년을 위한 랩(Rap) 음악치료 가사분석 연구	KJMT
100	2020	배성진, 김경숙	음악극 창작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KMHB
101	2020	김지윤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또래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동기화 기반 그룹 음악치료 사례	KMHB
102	2020	송지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게임 이용동기 인식을 위한 그룹 음악심리치료 사례	KMHB
103	2020	김은애	장애-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KMHB

<부록 2> 분석 대상 국외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2)

연번	연도	저자	제목	학술지
1	1999	Wheeler	Experiencing Pleasure in Working with Severely Disabled Children	JMT
2	1999	Schunk	The Effect of Singing Paired with Signing on Receptive Vocabulary Skills of Elementary ESL Students	JMT
3	1999	Gardstrom	Music Exposure and Criminal Behavior: Perceptions of Juvenile Offenders	JMT
4	1999	Irgens-Møller	Music Therapy in Child Psychiatry - a two-year project on a psychiatric unit for pre-school children	NJMT
5	2000	Robb	The Effect of Therapeutic Music Interventions on the Behavior of Hospitalized Children in Isolation: Developing a Contextual Support Model of Music Therapy	JMT
6	2000	Robarts	Music Therapy and Adolescents with Anorexia Nervosa	NJMT
7	2001	Cassidy	Gender Differences Among Newborns on a Transient Otoacoustic Emissions Test for Hearing	JMT
8	2001	Kern & Wolery	Participation of a Preschooler with Visual Impairments on the Playground: Effects of Musical Adaptations and Staff Development	JMT
9	2001	Register	The Effects of an Early Intervention Music Curriculum on Prereading/Writing	JMT
10	2001	Hilliard	The Effects of Music Therapy-Based Bereavement Groups on Mood and Behavior of Grieving Children: A Pilot Study	JMT
11	2001	Colwell et al.	Disability Simulations and Information: Techniques for Modifying the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Music Students	JMT
12	2001	Gold et al.	The Development of a Research Design to Assess the Effects of Individual Music Therapy with Mentally Ill Children and Adolescents	NJMT
13	2001	Rolvjord	Sophie Learns to Play her Songs of Tears - A case study exploring the dialectics between didactic and psychotherapeutic music therapy practices	NJMT
14	2002	Stordahl	Song Recognition and Appraisal: A Comparison of Children Who Use Cochlear Implants and Normally Hearing Children	JMT
15	2002	Brownell	Musically Adapted Social Stories to Modify Behaviors in Students with Autism: Four Case Studies	JMT
16	2002	Layman et al.	Music Therapy Assessment for Severely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A Pilot Study	JMT

연번	연도	저자	제 목	학술지
17	2003	Perry	Relating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with Severely and Multiply Disabled Children to Communication Development	JMT
18	2003	Rickson & Watkins	Music Therapy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s in Aggressive Adolescent Boys – A Pilot Study	JMT
19	2003	Robb	Music Interventions and Group Participation Skills of Preschoolers with Visual Impairments: Raising Questions about Music, Arousal, and Attention	JMT
20	2004	Register	The Effects of Live Music Groups Versus an Educational Children’s Television Program on the Emergent Literacy of Young Children	JMT
21	2004	Whipple	Music in Interven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A Meta-Analysis	JMT
22	2004	Tan	The Effects of Background Music on Quality of Sleep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MT
23	2004	Edwards & Kennelly	Music Therapy in Paediatric Rehabilitation	NJMT
24	2004	Elefant & Lotan	Rett Syndrome: Dual Intervention - Music and Physical Therapy	NJMT
25	2005	Cevasco & Grant	Effects of the Pacifier Activated Lullaby on Weight Gain of Premature Infants	JMT
26	2005	Dureau	The Effect of Gender on One-Day-Old Infants’ Behavior and Heart Rate Responses to Music Decibel Level	JMT
27	2005	Kennedy & Scott	A Pilot Study: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on Middle School Students’ ESL Skills	JMT
28	2005	Amir	Re-finding the Voice - Music Therapy with a Girl who has Selective Mutism	NJMT
29	2005	Frank	David’s Music - An Observation of Musical Interactions with a Schizophrenic	NJMT
30	2006	Darrow	The Role of Music in Deaf Culture: Deaf Students’ Perception of Emotion in Music	JMT
31	2006	Noguchi	The Effect of Music Versus Nonmusic on Behavioral Signs of Distress and Self-Report of Pain in Pediatric Injection Patients	JMT

연번	연도	저자	제 목	학술지
32	2006	Rickson	Instructional and Improvisational Models of Music Therapy with Adolescents Who Hav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n Motor Impulsivity	JMT
33	2006	DeBedout & Worden	Motivators for Children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Self-Contained Classroom : A Movement Analysis	JMT
34	2006	Whitehead-Pleaux et al.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ediatric Patients' Pain and Anxiety During Donor Site Dressing Change	JMT
35	2006	Kern & Aldridge	Using Embedded Music Therapy Interventions to Support Outdoor Play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in an Inclusive Community-Based Child Care Program	JMT
36	2006	Waldon	Predictive Utility of the Computer-based Music Perception Assessment for Children (CMPAC)	JMT
37	2006	Lehtonen	Music as a Promoter of Psychic Work - A Clinical Case - Study of an Eight - year - old Girl	NJMT
38	2007	Register et al.	The Use of Music to Enhance Reading Skills of Second Grade Students and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ies	JMT
39	2007	Hilliard	The Effects of Orff-Based Music Therapy and Social Work Groups on Childhood Grief Symptoms and Behaviors	JMT
40	2007	Whitehead-Pleaux et al.	Exploring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ediatric Pain: Phase 1	JMT
41	2008	Paul	Using Verbal Reports to Investigate Children's Aesthetic Experiences with Music	JMT
42	2008	Whipple	The Effect of Music-Reinforced Nonnutritive Sucking on State of Preterm, Low Birthweight Infants Experiencing Heelstick	JMT
43	2008	Hsiao	Mandarin Melody Recognition by Pediatric Cochlear Implant Recipients	JMT
44	2008	Paul	Using Verbal Reports to Investigate Children's Aesthetic Experiences with Music	JMT
45	2009	Katagiri	The Effect of Background Music and Song Texts on the Emotional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Autism	JMT
46	2009	Sussman	The Effect of Music on Peer Awareness in Preschool Ag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MT
47	2009	Wolfe & Noguchi	The Use of Music with Young Children to Improve Sustained Attention during a Vigilance Task in the Presence of Auditory Distractions	JMT

연번	연도	저자	제 목	학술지
48	2009	Cassidy	The Effect of Decibel Level of Music Stimuli and Gender on Head Circumferenc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Premature Infants in the NICU	JMT
49	2009	Keith et al.	The Effects of Music Listening on Inconsolable Crying in Premature Infants	JMT
50	2009	Strehlow	The use of music therapy in treating sexually abused children	NJMT
51	2010	Lim	Effect of “Developmental Speech and Language Training Through Music” on Speech Produc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MT
52	2010	Barry et al.	Music Therapy CD Creation for Initial Pediatric Radiation Therapy: A Mixed Methods Analysis	JMT
53	2010	Shoemark & Grocke	The Markers of Interplay Between the Music Therapist and the High Risk Full Term Infant	JMT
54	2011	Reschke-Hernandez	History of Music Therapy Treatment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Autism	JMT
55	2011	Gooding	The Effect of a Music Therapy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on Improv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ocial Skills Deficits	JMT
56	2011	Lim & Draper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Incorporated with Applied Behavior Analysis Verbal Behavior Approach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MT
57	2011	Teckenberg-Jansson et al.	Rapid effects of neonatal music therapy combined with kangaroo care on prematurely born infants	NJMT
58	2011	Gattino	Effects of relational music therapy on communication of children with autism: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NJMT
59	2012	Brown & Jellison	Music Research with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and Typically Developing Peers: A Systematic Review	JMT
60	2012	Goldbec & Ellerkamp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Multimodal Music Therapy for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JMT
61	2012	Kalas	Joint Attention Response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to Simple versus Complex Music	JMT
62	2012	Cohen et al.	A multiple-perspective approach to graphic notation	NJMT

연번	연도	저자	제 목	학술지
63	2013	Roberts & McFerran	A Mixed Methods Analysis of Songs Written by Bereaved Preadolescents in Individual Music Therapy	JMT
64	2013	Layman et al.	The Beech Brook Group Therapy Assessment Tool: A Pilot Study	JMT
65	2013	Felsenstein	From uprooting to replanting: on post-trauma group music therapy for pre-school children	NJMT
66	2014	Waldon & Broadhurst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usic Attentiveness Screening Assessment (MASA)	JMT
67	2014	LaGasse	Effects of a Music Therapy Group Intervention on Enhancing Social Skills in Children with Autism	JMT
68	2014	Haslbeck	Creative music therapy with premature infants: An analysis of video footage	NJMT
69	2014	Garunkstiene et al.	Controlled trial of live versus recorded lullabies in preterm infants	NJMT
70	2014	Kim	The trauma of parting: Endings of music therapy with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NJMT
71	2015	Kim	Music therapy with children who have been exposed to ongoing child abuse and poverty: A pilot study	NJMT
72	2015	Solli	Battling illness with wellness: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young rapper's experiences with music therapy	NJMT
73	2016	Waldon et al.	The Music Attentiveness Screening Assessment, Revised (MASA-R): A Study of Technical Adequacy	JMT
74	2016	Geretsegger et al.	Feasibility of a Trial on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MT
75	2016	Fiore	Analysis of Lyrics from Group Songwriting with 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JMT
76	2017	Brown	The Influence of Music on Facial Emotion Recogni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Neurotypical Children	JMT
77	2017	Gold et al.	Group Music Therapy as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Young People at Risk: Cluster-Randomized Trial	JMT
78	2017	Smetana	Recurring similarity: the meaning of musical objects in music therapy for adolescents with structural disorders	NJMT

연번	연도	저자	제 목	학술지
79	2017	Ullsten et al.	Live music therapy with lullaby singing as affective support during painful procedures: A case study with microanalysis	NJMT
80	2017	Saarikallio et al.	Adolescents' musical relaxation: understanding related affective processing	NJMT
81	2018	Yurkovich et al.	The Effect of Music Therapy Entrainment on Physiologic Measures of Infants in the Cardiac Intensive Care Unit: Single Case Withdrawal Pilot Study	JMT
82	2018	Pasiali & Clark	Evaluation of a Music Therapy Social Skills Development Program for Youth with Limited Resources	JMT
83	2018	Yoo & Kim	Dyadic Drum Playing and Social Skills: Implications for Rhythm-Mediated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MT
84	2018	Moore & Hanson- Abromeit	Feasibility of the Musical Contour Regulation Facilitation (MCRF) Intervention for Preschooler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A Mixed Methods Study	JMT
85	2018	Marom et al.	Musical features and interactional functions of echolalia in children with autism within the music therapy dyad	NJMT
86	2018	Johns	Exploring musical dynamics in therapeutic interplay with children: A multilayered method of microanalysis	NJMT
87	2019	LaGasse et al.	Assessing the Impact of Music Therapy on Sensory Gating and Attention in Children With Autism: A Pilot and Feasibility Study	JMT
88	2019	Myers- Coffman et al.	The Resilience Songwriting Program for Adolescent Bereavement: A Mixed Methods Exploratory Study	JMT
89	2019	Archambault et al.	MAP: A Personalized Receptive Music Therapy Intervention to Improve the Affective Well-being of Youths Hospitalized in a Mental Health Unit	JMT
90	2019	Uhlig et al.	Rap & Sing Music Therapy and sleep in adolescents: A single-blind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JMT
91	2019	Salomon- Gimmon & Elefant	Development of vocal communica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uring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NJMT

연번	연도	저자	제 목	학술지
92	2019	Fairchild & McFerran	“Music is everything”: Using collaborative group songwriting as an arts-based method with children experiencing homelessness and family violence	NJMT
93	2019	Thompson & Elefant	“But I want to talk to you!” Perspectives on music therapy practice with highly verbal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NJMT
94	2020	Nielsen & Holck	Synchronicity in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 Developing an intersubjective field with a chil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NJMT
95	2020	Myers- Coffman et al.	The Resilience Songwriting Program: A working theoretical model and intervention protocol for adolescent bereavement	NJMT
96	2020	Wiess & Bensimon	Group music therapy with uprooted teenagers: The Importance of structure	NJMT

-
- 1)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KJTM, KMHB) 창간연도 순으로 기재함.
2) 국외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JMT, NJMT) 창간연도 순으로 기재함.